

V. 삼 한

1. 삼한의 정치와 사회
2. 삼한의 문화

V. 삼 한

1. 삼한의 정치와 사회

1) 진국과 삼한

三韓은 馬韓·辰韓·弁韓을 뜻하며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경까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있던 정치집단들을 말한다. 삼한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3세기 후반 晉의 陳壽가 편찬한 《三國志》 魏書 東夷傳이며(이하 《삼국지》 동이전으로 약칭함), 여기에는 漢 이후 3세기 전반까지의 한반도의 사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 동이전에 의하면 당시 삼한과 함께 한반도 북으로는 高句麗가, 서북지역에는 樂浪郡·帶方郡 등 중국의 군현이, 동북지역에는 東濊·沃沮와 같은 정치집단들이 있었다. 삼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崔致遠이 삼한을 삼국에 비정한 이후 조선 초기 權近 등의 《東國史略》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삼한=삼국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¹⁾ 그러나 조선 중기 韓百謙(1552~1615)이 《東國地理誌》에서 마한을 경기·충청·전라지역에, 진한과 변한을 경상도지역에 비정한 이래 조선 후기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이 설을 따랐다. 이후 진한을 경기도 일대에 비정하는 새로운 설이 나오기도 하였으나²⁾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백겸의 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국지》 동이전 韓條에는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 모두 합하여 78개의 國名이 실려 있다. 삼한의 국들은 이전에는 部族國家라고 불려 왔으

1) 崔致遠은 마한을 고구려, 진한을 신라, 변한을 백제지역으로 비정하였고(《三國史記》 권 46, 列傳 6, 崔致遠), 《東國史略》에서는 마한을 백제, 변한을 고구려, 진한을 신라지역에 비정하였다.

2)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261~267쪽.

나 이는 신석기문화 단계의 사회집단을 뜻하는 ‘부족’과 발달된 사회 단계의 조직적인 정치체를 뜻하는 ‘국가’라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의 부자연스러운 결합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³⁾ 80년대 후반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삼한의 각 국들이 다수의 읍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근거로 邑落國家로 칭하자는 견해도 있고, 土城이나 木柵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와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城邑國家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⁴⁾ 이와 달리 이들을 국가 성립 이전 단계의 정치집단으로 간주하여 chieftdom(君長社會, 酋長社會, 族長社會 등으로 번역되고 있음)이라는 정치인류학적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다.⁵⁾ 또는 삼한의 국들은 삼국시대의 국에 비해 영토나 인구의 규모가 훨씬 작다는 의미에서 小國이라는 편의적 용어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집단의 크기를 大小로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아니라 대소의 구분만으로는 정치집단의 성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정치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小國은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있다.

삼한의 국들은 모두 청동기문화 단계 이래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 성립되어 있었던 토착사회가 성장 발전한 것으로 삼한의 성립은 삼한을 구성하는 각 소국이 성립되는 시기와, 지역별로 소국들이 연맹체를 형성하여 마한·진한·변한으로 분립되는 시기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의 토착집단을 韓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불확실하다. 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긴 고조선의 準王이 南走하여 韓地에 거주하고 스스로 韓王이라고 했다는 《魏略》의 기록을 근거로 준왕 남주 이후부터 중남부지역이 한으로 칭해졌다는 설이 있으나 의문이 없지 않다. 《史記》朝鮮傳에 眞番 곁에 있던 辰國이⁶⁾ 중국 漢나라와 직접 통교하고자 하였으나

3)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高麗大 出版部, 1986), 47~55쪽.

4) 千寬宇, 〈韓國史의 潮流〉 4, 南北의 古代國家(《新東亞》1972년 9월호), 226~228쪽.

李基白, 〈高句麗의 國家形成 問題〉(歷史學會 編,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85~95쪽.

5) 金貞培, 앞의 책, 195~209쪽.

6) 流行本 《史記》에는 ‘衆國’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百納本 《사기》에 ‘辰國’으로 표기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기》 판본 연구를 통해 宋代까지의 《사기》는

衛滿朝鮮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어,⁷⁾ 기원전 2세기경에는 서북지방의 위만조선과 함께 중부 이남지역에는 진국이라는 정치집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삼국지》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의 기록에는 위만조선이 멸망하기 이전 朝鮮相 歷谿卿이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右渠와 뜻이 맞지 않아 동쪽 진국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 기원전 2세기경 중남부지역의 저명한 정치집단으로서 진국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런데 진국의 이름은 기원전 2세기 말 위만조선의 멸망과 漢郡縣의 설치라는 서북한지역의 정치적인 파동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중부 이남지역의 정치집단들은 韓으로 불려지고 있다. 後漢 光武帝 建武 20년(기원후 44) 廉斯人 蘇馬謨를 ‘韓廉斯邑君’으로 봉했다는 기록이⁸⁾ 있어 이미 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국과 韓의 관계에 대해 《삼국지》동이전에는 ‘진한은 옛 진국’이라 한 데 비해 《後漢書》동이전에는 ‘삼한이 모두 진국에서 발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연구자의 논지에 따라 둘 중 하나가 임의적으로 선택되고 있다.⁹⁾ 그러나 《후한서》의 기록은 진국의 영역을 중남부 전역에 걸친 것으로 이해한 데서 온 오류이며, 《삼국지》에서 진국을 진한과 연결지은 것은 ‘辰’이라는 글자의 공통성에 덧붙여 진국의 방향이 위만조선의 동쪽에 있다는 것과 진한이 마한의 동쪽에 위치한다는 방향의 공통성을 토대로 史書 편찬과정에서 찬자가－《위략》 찬자인지 《삼국지》동이전 찬자인지는 불확실하나－내린 추론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고고학 자료상 중부 이남지역은 진국에서 한이라는 명칭의 변동에 관계없이 細形銅劍文化 단계 이래의 주민과 문화가

진국으로 기록되어 왔으나 이후 오류가 발생하여 衆國으로 잘못 기록된 것이라는 고증이 있다. 이처럼 진국의 명칭이 최초로 나오는 곳은 《사기》朝鮮列傳이다. 그러나 유행본 《사기》를 따라 衆國을 취하고 진국이라는 단일한 정치집단 대신 다수의 정치집단을 상징하는 이른바 衆國說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사기》와는 사료 계통과 내용을 달리하는 《魏略》과 《三國志》동이전에도 분명 진국의 명칭이 나오고 있으므로 진국이 바른 표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7) 《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8) 《後漢書》권 85, 列傳 75, 東夷 韓.

9) 예컨대 진국을 부인하고 衆國說을 취할 경우 《후한서》의 기록이 논리에 더 적합할 것이며, 《조선전사》처럼 진국을 구성한 단위집단이 삼한 70여 소국이라는 주장도 《후한서》의 기록을 취한 결과이다.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진국에서 한으로의 명칭 변화가 진행되는 기원전 2세기 말에서 서력 기원을 전후하여 철기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변화가 있으나 삼한사회는 기본적으로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주민과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진국에서 한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진국과 연관지워질 수 있는 것이 진한인지, 마한인지 아니면 삼한 전체로 볼 것인지는 삼한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거나 성격지우는 데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진국이라는 정치집단의 해체와 한의 각 소국의 출현을 어떠한 과정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진국이 존속했던 기원전 2세기의 중남부지역은 세형동검문화가 발달했던 단계이다. 철제 도끼와 끝 등의 철기 완제품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철기의 사용은 제한적이었으며 무기와 儀器 및 공구의 주된 재료는 여전히 청동이었다. 그러므로 진국은 청동무기 못지 않게 청동거울과 청동제 방울 등을 권위의 상징물로 소중하게 여기고 물리적인 힘보다 제사장의 권위와 능력을 권력의 주요 토대로 삼고 있는 이른바 제정일치적인 사회 단계에 있었으며, 진국은 제정일치 단계의 족장들에 의해 통솔되는 다수 정치집단들의 집합체로 파악된다. 이 시기 중남부지역내에서 청동유물과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금강과 영산강유역이므로¹⁰⁾ 진국의 지리적 위치 역시 충남과 전라도지역 일대에 비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 말엽부터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철기문화의 유입으로 철자원 개발과 철기의 제작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서북한지역의 정치적 변동으로 상당수의 유이민들이 중부 이남지역으로 들어 오게 된다. 이로 인해 청동기의 제작과 관리 및 교역의 중심지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진국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철자원이 풍부한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경제적 구심점이 형성되면서 중부 이남지역 토착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정치·문화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에 따라 시간적인 선후의 차이가 있고, 소

10) 國立中央博物館, 〈靑銅遺物關係資料〉(《韓國의 靑銅器文化 特別展》, 汎友社, 1992), 150~154쪽.

국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계기 역시 다양하였을 것이나, 70여 개 개별 정치집단으로서의 삼한 소국의 성립은 이같은 한반도 전체의 정치·문화적 변동과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평균적으로 마한지역이 진한과 변한지역에 비해 인구도 많고, 세형동검문화 단계에서는 정치·문화적인 발달 정도도 선진적이었다. 금강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권위와 경제적인 부의 상징인 청동제품들을 다량으로 부장하는 분묘유적들이 집중 분포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마한 소국들 중에는 한강유역의 백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성립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나, 상당수는 기원전 3~2세기경 충남과 전라도지역에 성립되어 있었던 정치집단들이 진국의 해체 이후에도 개별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마한의 중요 소국으로 존속 발전해간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이에 비해 경상도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서부터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다량의 철기를 부장하는 土壙木棺墓유적들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새로운 정치권력의 형성과 계층분화 현상을 시사한다. 특히 경주·대구·김해 등지에서 집중 출토되는 이 시기의 금속제 유물들은 이전 단계와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적 상황의 전개를 반영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다.¹²⁾

삼한 소국의 성립 과정을 개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나 백제·신라·가야 각국의 건국설화를 분석하거나 고고학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소국 형성의 유형을 일부 추론할 수는 있다. 진한의 맹주격인 斯盧國의 형성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기원전 57년 6村의 촌장들이 모여 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하고 국호를 徐那伐이라 하였다는 건국설화가 실려 있다. 변진의 拘邪國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의 駕洛國記에 기원후 42년 9干 즉 9명의 족장들이 모여 首露를 왕으로 추대하고 가락국을 세웠다는 건국설화가 전해진다. 문헌 기록에 나오는 사로국과 구야국의 건국 연대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보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라는 대체적인 시기를

11)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37~47쪽.

12) 崔鍾圭, 〈慶州市朝陽洞遺蹟發掘調查概要とその成果〉(《古代文化》 35, 1983), 353~363쪽.

林孝澤, 《洛東江下流域 加耶의 土壙木棺墓研究》(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3), 8~34쪽.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같은 연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고학 자료상의 새로운 변화 추세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고고학계에서는 경남 義昌郡 茶戶里유적과 경주 朝陽洞 38호분을 기준으로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부터 기원후 1세기 전반에 걸치는 시기를 原三國時代(김해문화, 삼한시대)의 첫 단계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¹³⁾

마한 백제국의 형성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백제본기에 기원전 18년 부여계 고구려 유민인 溫祚가 10臣의 補翼을 받아 十濟를 건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한강 하류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문헌 기록과 대비하여 고찰할 만한 이 단계의 고고학적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다. 신석기시대 이래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왔음은 여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¹⁴⁾ 그리고 질량면에서 금강과 영산강유역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지만 중랑천·성내천·안양천 등 한강 하류의 지류 부근에서 출토되는 소량의 청동유물들은 기원전 3~2세기경 다수의 소규모 정치집단들이 이곳에 성립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철기가 널리 확산되는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한강유역 각지에서도 철기 유물을 내는 집자리 유적들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어, 철기문화의 확산이 백제국 출현의 사회·문화적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물론 경상도지역에 비해 3세기 이전 단계의 墳墓나 방어시설 등 백제국의 형성과 건국 주체세력의 出自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의 발견은 아직 미흡하다.¹⁶⁾ 앞으로 漢江 남쪽으로 옮기기 이전의 백제국 최초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한강 북쪽 경기도 일대의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자료가 축적된다면 백제국 성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백제국 성립의 정치·문화적 배

13) 李健茂 外, 〈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1)〉(《考古學誌》 1, 1989), 53쪽.

崔鍾圭, 《三韓社會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3), 117쪽.

14) 權五榮, 〈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韓國史論》 15, 서울대, 1986), 8~11쪽.

15) 權五榮, 위의 글, 57~59쪽.

16) 백제국의 토성유지로 추정되는 夢村土城의 上限연대도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기원후 3세기를 더 올라가지 못하며, 石村洞·可樂洞 일대에서 조사된 분묘유적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李賢惠,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 百濟研究所, 1997, 9~11쪽).

경 역시 중남부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속에서 예외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소국 성립을 이같은 시간적·문화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변화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삼국지》동이전에는 “國邑에는 主帥가 있으나 邑落들이 雜居하여 서로 잘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여 삼한의 각 국은 국읍과 다수의 읍락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國’은 지배적인 邑을 뜻하므로 국읍이란 다수의 읍락들 중에서도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는 대읍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삼한의 각 국은 대소의 읍락들로 구성된 정치집단이라 하겠다. 그런데 진한 사로국과 변진 구야국, 마한 백제국의 건국설화에는 6村長과 9千, 10臣 등이 모여 각 국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 이들이 통솔하는 집단이 바로 소국을 구성한 읍락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읍락은 소국 형성 이전부터 각지에 성립되어 있었던 개별적인 정치집단들로 6촌장 설화 등을 통해 볼 때 이들은 청동기문화 단계의 族的 결합원리와 정치형태에 바탕을 둔 집단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삼한 각 소국의 성립은 이러한 소규모 집단들이 철기문화의 확산과 유이민의 이동이라는 정치·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地緣에 바탕을 둔 보다 확대된 정치집단으로 통합 발전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2) 삼한의 정치

(1) 소국의 정치권력

삼한 소국의 정치적 성격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국의 구성단위인 읍락과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삼국지》동이전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國邑·邑落·小別邑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읍은 소국의 중심되는 읍락을 뜻하며 규모가 크거나 일반 읍락과 구별되는 기능을 일부 발휘하고 있다. 소별읍은 소국의 일부로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개별 읍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진지역에는 동이전에 기록된 12국 이외에도 이러한 소규모의 독립적인 정치집단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국읍과 소별읍 등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사회적 구성이나 조직 원리면에서는 일반 읍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읍락이란 대규모 주민거주지인 邑과 촌락의 뜻인 落의 복합어라는 해석도 있고 《삼국지》동이전의 읍락의 용례 중에는 단순히 일반 취락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이전의 읍락은 단순한 자연촌락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삼한 소국을 구성한 대소 읍락들의 개별적인 규모를 추정해보면 각 소국의 규모가 서로 다르듯이 읍락 역시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삼국지》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의 국들은 규모가 큰 것이 1만여 家 작은 것이 수천 가로 총호수가 10여 만 호이고, 진변한의 국은 큰 것이 4~5천 가, 작은 것이 6~7백 가로 총호수가 4~5만 호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 사로국과 구야국의 경우 진변한 소국들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했을 것이므로 4~5천 가를 6촌으로 나누면 평균 6백~8백 호가 되고 이를 9간으로 나누면 4백~6백 호가 된다. 그리고 백제국의 경우, 마한의 국들은 큰 것이 1만여 가, 작은 것이 수천 가라 하였으므로 이를 10邑으로 나누면 1천여 가 또는 수백 가가 된다. 규모의 크고 작음은 통합된 읍락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평균적 계산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읍락의 일반적인 규모를 5백 호 이상 1천 호 미만으로 추정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다. 이 정도 규모의 집단이라면 단일한 자연촌락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오히려 다수 취락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읍락은 자연촌락과는 달리 정치·경제적으로 통일적인 기능을 발휘하던 개별 집단이었다. 신라 건국설화에 의하면 사로국을 구성한 6촌에는 각 촌별로 시조가 있다. 그러므로 읍락의 구성원은 동일한 시조의 후손이라는 의제적인 혈연의식으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읍락의 통치자는 족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읍락은 독립된 통치자를 세우고 있었으며 이를 沃沮와 東濊에서는 삼로, 삼한에서는 邑借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읍락은 경제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이 보장되는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동예에서 읍락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사람·소·말 등으로 변상했다고 하는 責禍의 풍습이¹⁷⁾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읍락의 공동체적 성격을 반영하여 읍락공동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각 소국들이 《삼국지》 동이전에 고유한 국명을 가진 정치집단으로 열거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국읍을 중심으로 단일한 지배자를 세우고, 대외적으로 통합된 정치체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국의 정치 형태는 각 읍락들을 통할해 나가던 국읍의 통치기능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국읍 主帥는 臣智 등으로 불려졌으며 유력한 소국의 신지들은 각종의 優號를 붙여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기도 하였다.¹⁸⁾ 국읍 통치자가 발휘하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제적인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한군현의 설치, 철자원의 개발, 농업생산력의 증대 등으로 각지의 정치집단들간에 교역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전 시기에 비해 교역 대상과 교역품의 내용도 훨씬 다양해졌다.¹⁹⁾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토착집단들은 효율적인 교역의 수행과 교역품 관리를 위해서 조직적인 기구를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 읍락단위의 소규모 활동보다는 여러 읍락을 대표하여 국읍의 주수가 각종의 대내외 교역활동을 주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읍락들을 결속시키고 국읍 주수의 통치기반을 유지시켜주는 중요 작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집단간의 무력 항쟁과 이에 대한 공동 방어라는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외적이 침입할 경우 6部兵이 출동하여 이를 막아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²⁰⁾ 6부병이란 각 읍락의 족장들이 거느린 병력이며 《삼국사기》의 기사는 유사시에 국읍 주수의 통솔하에 읍락의 족장들이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공동 대응하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집단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무기가 발달하고 역으로 무기의 발달이 집단간의 무력 항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진변한지역의 지배자들의 무덤에서는 기원전 1세기 이래 이미 다량의 무기가 부장될 뿐 아니라 2세기 말엽 이후가 되면 전체 부장 유물 중에서 무기의 비중이 더욱 커진다. 마한의 무기들 역시 진변한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유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무기의

17)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藏.

18)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19) 李賢惠, 〈三韓의 對外交易體系〉(《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36~48쪽.

20)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南海次次雄 11년 및 권 2, 新羅本紀 2, 奈解尼師今 14년.

발달 정도는 진변한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집단간에 무력 경쟁이 상존하면 위협에 대비한 방어 시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삼국지》한조의 기록에도 성곽의 존재와 성곽 축조광경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당시의 성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지 또는 《삼국지》기록대로 마한에는 성곽이 없고 진변한에만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그러나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삼한 각지에서 취락 주변에 설치된 木柵과 環濠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방어 시설의 구체적인 모습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요컨대 무기의 발달과 방어 시설의 출현은 소국간에 무력 경쟁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읍락간의 결속을 다지고 국읍 주수의 통치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국읍이 읍락들을 통솔해 나가던 다른 하나의 통합기반은 제천의식의 거행이다. 《삼국지》동이전에 의하면 삼한에서는 귀신을 믿었는데 각 국읍이 한 사람의 天君을 세워 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고 한다. 국읍에서 거행한 제사의식을 祭天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사 내용이 중국의 제천의식과 같다는 뜻은 아니며, 이 제사의식의 정치사회적 기능이 중국의 제천의식과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이 제사의식의 목적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국읍의 주도하에 초읍락적인 신을 제사지냄으로써 읍락간의 결속을 다짐하고 이로써 국읍 주수의 정치권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²¹⁾ 물론 삼한의 정치적 지배자는 이미 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한 정치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세속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제정분리의 사회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고 국읍 주수의 권력기반은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富와 군사력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국 성립 초기 단계에는 읍락별 독자성은 여전히 강한 반면 국읍과 읍락의 상대적인 세력 격차는 크지 않아 소국의 정치적 통합력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읍에는 主帥가 있으나 읍락이 雜居하여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21) 제천행사는 연맹왕국 단계에 이르러 초부족적인 신으로 등장하는 것이므로 삼한에서는 아직 제천행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金杜珍, 〈三韓別邑社會의 蘇塗信仰〉, 歷史學會 編, 앞의 책, 104~106쪽).

사로국 초기 단계의 6촌간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사료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悉直谷國과 音汁伐國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사로국의 婆娑尼師今이 김해 구야국의 首露王을 중재자로 초대하고 6부의 장들을 모이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漢祗部와 수로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수로왕이 奴耽下里에게 한기부의 長을 벌할 것을 명령하고 돌아 갔다는 기사가 있다.²²⁾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한기부라는 사로국을 구성하는 읍락이 대외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인 견해를 가지고 독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구야국과 한기부의 충돌에 사로국 국읍 주수에 해당하는 婆娑尼師今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화적인 윤색이 가해진 기록이기는 하나 이는 초기 단계의 삼한 소국의 정치권력의 한계와 읍락집단의 상호 관계를 반영하는 좋은 예라고 여겨진다.

국읍 또는 각 읍락간의 상대적인 세력 격차나 분포 상태 등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면 일정한 영역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존했던 유물과 유적들을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유물과 유적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유적의 종류도 분묘에 집중되어 있어 취락집단의 크기나 구성에 대한 비교 검토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분묘 자료의 비교를 통해서도 부족하나마 읍락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발견되며, 특히 철기와 같은 사치품의 양을 통해서도 국읍의 상대적 우세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상도지역의 분묘군을 분묘의 크기와 부장품의 구성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가 있는데²³⁾ 이 가운데서 의창 다호리유적과 같이 우수한 부장품이 들어 있는 소수 지배자의 무덤뿐 아니라 분묘군 전체의 평균적 물량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우세한 것을 국읍 소재지로, 소수의 분묘는 여전히 우수한 부장품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분묘는 부장품의 질과 양이 현저하게 빈약한 것을 일반 읍락의 소재지로 비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읍락 소재지의 예로 김해 良東里와 경주 朝陽洞유적을 들고 있는데 조양동유적에서는 조사된 토광목관묘의 대부분이 소량의 토기와 철기로 구성된 단순한 부장상을 보이는 데 비해, 38호분

22)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23년.

23) 崔鍾圭, 앞의 책, 88쪽.

만이 예외적으로 前漢鏡을 4매나 부장하고 있다. 양동리유적 역시 토광목관묘 단계에서는 읍락의 장으로 추정되는 55호분과 같은 소수의 분묘만이 우수한 부장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장품이 빈약하다.²⁴⁾ 이에 비해 다호리분묘군은 유물의 질과 양이 전체적으로 조양동이나 양동리유적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1호분의 경우 칠기와 같은 다량의 사치품이 부장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 권위와 대외 교섭의 척도로 간주될 수 있는 漢鏡과 같은 수입품이 국읍으로 간주되는 다호리 1호뿐 아니라 일반 읍락으로 추정되는 김해 양동리나 조양동 38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토되고 있어, 정치적 권위나 대내 문제에 있어서는 읍락의 통치자도 국읍 신지 못지 않게 여전히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⁵⁾

(2) 소국연맹체의 형성

읍락의 전통적 독자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 불충분했던 소국의 정치 권력은 점차 그 한계가 극복되어 나갔다. 《삼국지》 동이전에 기원후 2세기 말엽 韓과 濊가 강성해서 낙랑군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이 한으로 유입되어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때의 한은 경기지역의 한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치·경제적 성장 과정이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逸聖尼師今 5년(138)에 金城에 政事堂을 설치하였거나 沾解尼師今 2년(249)에 궁성 남쪽에 南堂을 세웠다는 기

24) 林孝澤, 앞의 책, 21~26쪽.

25) 근래 정치체의 성장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경상도 지방의 분묘군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대까지도 분묘의 입지와 분묘의 규모면에서는 상하의 위계화된 질서가 아직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다호리 1호분은 다른 분묘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1호분을 중심으로 다른 분묘들이 모여 있지도 않으며 분묘의 규모도 특별히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1~2세기대의 분묘군들은 상호 독립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소국 초기단계의 국읍과 읍락간의 결속 관계의 특수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국읍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하면서도 그 격차가 크지 않아 다른 읍락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여 각 읍락의 독자성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던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는 뜻이다(李盛周,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5, 1993, 145~146쪽).

록이 있는데, 이는 소국 전체의 중요 정사를 의논하고 처리하는 상설 통치기구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의 출현은 초읍락적인 정치집단과 권력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며, 그간 소국의 정치권력에 일정한 성장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력의 점진적 집중과 강화는 지배집단의 묘제와 유물 부장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세기 말~3세기 초엽을 기점으로 진변한 지배집단의 묘제가 토광목관묘에서 토광목곽묘로 바뀌면서 매장 주체부의 규모가 확대되고, 부장되는 철기의 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특히 철제 무기의 부장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3세기 이후가 되면 고분의 입지면에서도 대형묘들이 능선의 정상부를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계층간의 위계관계가 분묘의 입지예까지 반영되고 지역적 차이가 확인된다고 한다.²⁶⁾ 이같은 분석 결과들을 문헌 기록을 통해 이해한다면 2세기 말~3세기 초엽경에는 국읍과 읍락 사이에 상하의 위계관계가 확립되면서 국읍 주수의 정치권력이 초기 단계에 비해 크게 성장해간 증거라고 하겠다.

소국의 대내적인 성장은 대외적인 팽창과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삼한 각 소국간의 상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각 지역별로 정치적 구심체가 등장하면서 소국간에 새로운 결속관계가 형성되거나 또는 기존의 결속관계가 재편되면서 한족사회가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분립하는 것이다. 마한지역 일부에서는 기원전 2세기 경 이미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정치집단들을 다수 포괄하는 진국이라는 구심체가 있었으나, 기원전 1세기 이래의 정치·문화적 변동 속에서 기존의 결집력이 해체·약화되면서 개편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마한지역의 그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3세기 전반경 이 지역에서는 目支國 辰王을 중심으로 하는 마한소국연맹체와 함께 한강유역의 백제국 중심의 소국연맹체의 존재가 확인된다. 진왕 중심의 마한소국연맹체는 상대적으로 토착성이 강하고 성립 시기가 빠르다. 반면 백제국 중심의 소국연맹체는 2세기 이후 중국 군현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성장 발전해나간 것 같다. 후한 말의 혼란기에 군현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경기도 북부

26) 李盛周, 위의 글, 147~148쪽.

의 정치집단들은 백제국을 중심으로 흡수 통합되어 갔다. 그러나 204년 경 帶方郡의 설치로 북쪽의 일부 집단들이 분할되어 나가고, 뒤이은 魏의 진출로(238) 백제소국연맹체는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특히 246년 경에는 魏의 토착세력 분할정책에 대항하여 帶方郡 崎離營(황해도 평산)을 공격하여 대방태수를 전사시키는 무력 충돌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²⁷⁾ 이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백제국이었으며 韓 소국들을 통솔한 인물은 백제 古爾王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⁸⁾ 같은 해 《삼국지》권 4, 魏書 4, 齊王芳紀의 “韓 那奚 등 수십 국이 種落을 거느리고 항복해왔다”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백제소국연맹체는 세력권이 크게 축소되는 타격을 입었다. 이 때 입은 타격으로 백제국이 河南으로 중심지를 옮겼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⁹⁾

이와 달리 목지국을 맹주로 하는 마한소국연맹체는 중국 군현과의 사이에 일정한 완충지대를 두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목지국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仁川설,³⁰⁾ 충남 稷山설,³¹⁾ 충남 禮山설,³²⁾ 전남 羅州설³³⁾ 등으로 다양하다. 《삼국지》 동이전에 마한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목지국의 진왕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은 진왕과 중국 군현과의 접촉관계가 오래거나 빈번했던 때문만은 아니며 군현과의 관계가 백제국과는 대조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국이 중심지를 한강 남쪽으로 옮기고 남부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辰王 세력과 경쟁관계가 조성되었다.³⁴⁾ 그러므로 백제국의 세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진왕은 중국 군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유리했

27)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28)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一潮閣, 1989), 242쪽.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辰王이며 이 충돌의 결과 辰王의 정치적 기반이 분해되고 중심지가 남부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92쪽).

29) 李賢惠, 앞의 글(1997), 22쪽.

30) 千寬宇, 〈目支國攷〉(《韓國史研究》 24, 1989), 26~29쪽.

31) 李丙燾, 앞의 책, 243~248쪽.

32) 金貞培, 〈目支國攷〉(앞의 책), 297쪽.

33) 崔夢龍, 〈考古學的 側面에서 본 馬韓〉(《馬韓百濟文化》 9, 圓光大, 1986), 12~14쪽.

34)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溫祚王 24・25・26년.

을 것이다.³⁵⁾ 그리고 마한소국연맹체는 결속 기반이나 구성면에서도 백제소국연맹체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마한소국연맹체의 맹주국인 목지국과 진왕의 권력 기반은 강압적인 위계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 아직도 완만한 상태의 결속관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특징이 3세기 후반 이후 백제소국연맹체와의 대결에서 한계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2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경상도지역의 소국 집단들간에도 맹주국을 중심으로 소국연맹체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지》동이전에 진변한 24국 중 12국은 마한의 辰王에게 속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리고 진한의 성립이 중국계 유민들의 정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³⁶⁾ 《삼국사기》의 기록이나 고고학 자료상으로도 진한소국연맹체 성립과정에서 중국계 유민의 역할이 중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절대연대에는 문제가 있으나 3세기에 이르기까지 사로국이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해나간 기록이 있어 사로국을 맹주로 하는 소국연맹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진한이란 사로국을 맹주로 하는 12개 소국연맹체로 이해될 수 있겠다.

변한 12국 역시 진한과 같은 소국연맹체를 형성하였는지 아니면 구야국을 맹주로 그 일부만이 소국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변진조에만 유일하게 변진 12국 역시 왕이 있다고 하여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단위체로 기능하고 있었던 듯한 표현이 있다. 그리고 3세기 후반 마한과 진한의 이름으로 韓의 토착 정치집단들이 팍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는데³⁷⁾ 변한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변진의 여러 소국들이 마한과 진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성이 강한 정치집단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변한은 마한, 진한과 같은 소국연맹체를 칭하는 것이

35) 伯濟國이 중심지를 河南 慰禮城으로 옮긴 시기에 대해서는 溫祚代설, 2세기 중엽 肖古王代설, 4세기 초 沸流王代설 등 견해가 다양하다(盧重國, 앞의 책, 57~58쪽 참조).

36)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37) 《晉書》권 97, 列傳 67, 東夷.

라기보다 경상도 각지의 정치집단들 가운데서 진한소국연맹체에 속하는 12개의 소국을 제외한 나머지 12국과 다수의 小別邑들 즉 독자적인 읍락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달리 변진 12국 역시 구야국을 맹주로 소국연맹체를 결성하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³⁸⁾

요컨대 지역별로 소국연맹체의 결성에 의한 확대된 政治體의 출현은 삼한 사회 자체의 정치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같은 정치적 성장은 사회·경제적인 성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3) 삼한의 경제와 사회

(1) 농경생활

《삼국지》동이전에 의하면 삼한은 토지가 비옥하여 주민들이 정작생활을 하고 五穀과 벼를 재배하였으며 누에와 뽕나무를 길러 생사와 비단을 생산하였고, 변한의 布는 폭이 넓고 섬세하여 낙랑에 수출되어 낙랑산 비단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진변한지역은 철자원이 풍부하여 제철과정을 거친 철기 제작원료가 마한·동예·왜·낙랑군·대방군 등지로 수출되었으며 철이 화폐처럼 각종 교역활동의 매개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철기 제작에는 鑄造와 鍛造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강철 제작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읍락민들은 농경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철생산과 토기제작 분야에서는 이미 전문인이 등장하고 있었다. 철기는 생산지가 국한되어 있고 전문적인 제작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처음부터 소수집단에 의해 독점 생산되었다. 토기 역시 일부는 전통적인 가내생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高火度の 硬質토기가 새로이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삼한의 주된 경제기반은 농경이다. 조·콩·보리·밀·팥 등 밭작물이 고루 재배되고 있었으며 삼한지역은 기후와 토양이 벼재배에 적합하여 벼농사가 특히 발달하였다. 벼농사의 대부분은 논(水田)에서 이루어졌을 것으

38) 金泰植, <가야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民音社, 1990), 69쪽.

로 추정되나 지역에 따라서는 밭벼(陸稻)가 재배되었을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水田의 입지형태는 알 수 없으나 한반도 벼농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일본 彌生(야요이)시대 수전을 참고하면 삼한지역 역시 배수를 중심으로 하는 저습지형 수전은 물론 인공 관개를 실시하는 半乾田 형태의 수전이 널리 개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⁹⁾

삼한의 농업생산의 기술적 토대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따비와 쟁이 중심의 농경기술이 확대 발전된 것이나 철기의 보급으로 목제 농기구가 점차 철제로 전환되면서 생산력면에서 획기적인 성장이 있었다. 농기구의 철기화 과정을 살펴 보면 수확도구가 가장 먼저 철제로 전환되었다. 석제 반달칼이나 돌낫이 사라지고 철제 손칼과 낫이 사용되면서 노동력의 절약뿐 아니라 수확 적정기를 농침으로서 입게되는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철제 손칼은 일상생활에서 다용도로 사용되는 도구로 보급도가 가장 높아 일반 주거지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낫에 비해 손칼의 보급도가 훨씬 높다는 것은 수확작업은 여전히 선별적인 이삭베기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낫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여러 포기를 베는 수확작업은 水田농업의 경우 논바닥을 편평하게 손질하여 벼가 자랄 동안 물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벼가 익는 시기를 통일할 수 있는 기술적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초기와는 달리 2~3세기 이후가 되면 낫의 보급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철제 농·토목구의 보급으로 인해 경작 기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삼한에서 널리 사용된 철제 起耕具의 하나는 철제 따비이다. 땅을 가는 기본 도구인 따비의 경우 철제 낫을 끼운다면 작업의 효율화는 물론이고 보다 깊이 땅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생산효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철제 따비는 대부분이 주걱형이며 경주 조양동·의창 다호리·김해 양동리·대구 八達洞·울산 下垔 등 모두 진변한지역의 토광목관묘와 토광목곽묘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따비는 손칼이나 낫과 달리 중국제 농기구와는 형태를 달리하는 한반도 독자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목제

39) 李賢惠, 〈三韓社會의 농업생산과 철제농기구〉(《歷史學報》126, 1990), 64~66쪽.

따비를 날 부분만 철제로 전환한 것이다. 다호리에서는 주걱형과는 달리 날 끝이 뾰족한 따비도 출토되었는데 철기 제작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목제 농구에 다양한 응용이 가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비와 함께 중요 농기구의 하나로 사용되어 온 것은 쟁이이다. 청동기시대 이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쟁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중 철제 쟁이로 먼저 전환된 것은 농·토목구로 사용되는 날끝이 좁고 긴 형태의 것이다. 나무쟁이가 쇠쟁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鑿이라는 철제 기경구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복합되어 한반도 고유의 쇠쟁이 모양이 만들어졌다. 쇠쟁이는 鑄造鐵斧로 불리면서 공구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다른 농구와 달리 구조에 의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다호리고분에 부장된 주조 도끼를 공구도 농구도 아닌 철소재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⁰⁾ 실제 다호리 출토 품은 전혀 사용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자루를 끼우는 구멍 속에 주조시 끼워 넣은 내형을 파내지도 않은채 부장된 것이어서 의문이 가는 점도 있다. 그러나 무덤에 부장된 철기는 실용적인 면 이외에 무덤 주인공의 경제적인 활동과 정치·사회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흔적이 없다고 하여 모든 주조쟁이를 비실용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형태의 쟁이는 밭농사에 있어서 고랑을 파거나 작물뿌리를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해를 묵힌 경작지를 다시 개간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쇠쟁이의 보급에 따라 특히 田作 농경지의 절대 면적이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U자형 철제 삼날 또는 가래날로 목제 삼이나 가래날의 가장자리 양면을 5~7cm 넓이의 철판으로 테를 돌린 것이다. 나무삼의 가장자리를 철제로 보강하는 것은 중국 철삼의 영향으로 생각되나 중국삼에

40) 李健茂 外, 앞의 글, 48쪽.

설사 이것이 철소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형태가 쟁이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쇠쟁이가 실제로 제작·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철자원이 귀할 때에는 기술이 허용하는 한 철기 완제품을 녹여서 필요한 다른 철기를 만드는 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철소재로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운반이나 보관에 편리한 형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굳이 까다로운 주형틀을 필요로 하는 쟁이 모양으로 제작할 이유가 없다.

비해 삼한지역 출토품은 날이 둥글게 벌어진 것이 다르다. 이 종류의 농기구는 흙을 파서 옮기는 데 편리한 도구로 주로 水田농사에서 水路를 파거나 보수하고 또는 급수나 배수 작업과 관련하여 물길을 트거나 막는 데 사용되는 농구이다. 날모양이 둥근 것도 수전경작에 적합한 전통적인 목제삽의 모양을 그대로 이은 때문이다. 마한지역에서는 충북 中原 荷川里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 1점 있고, 진변한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울산 하대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모두 2세기 말~3세기 경의 토광목곽묘에 부장된 것이다.⁴¹⁾ 삽 날끝을 철로 보강하면 저습한 논에서도 흙이 덜 묻어나 작업 능률이 오르고 수로의 보수 유지작업이 한결 용이해진다. 그리고 인공 용수로의 개설이 더욱 늘어나고 수전개발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삼국사기》백제본기의 仇首王 9년(222), 古爾王 9년(242) 그리고 신라본기의 逸聖王 11년(144)의 수전개발과 수리시설 보수에 관한 기록은 이와 같은 철제 농기구의 보급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수전경작지의 확대과정을 반영하는 기록이라 하겠다.⁴²⁾

이상의 철제 농기구들은 공통적으로 철제 무기와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풍부하게 부장된 대형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철제 농기구가 지배계층의 분묘 부장품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생산도구 그 자체가 중요한 자산일 뿐 아니라, 무기 못지않게 정치적인 권위와 경제적인 富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는 증거이다. 아직도 철제 농기구의 소유는 지배집단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보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지 확대와 생산력 증대라는 경제적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계층도 이들이었다. 따라서 철제 농기구와 각종 공구의 보급으로 집단 전체의 총생산력이 증대한 것은 사실이나, 지배집단이 획득한 잉여산물이 사회 전체의 평균적 생산력 증대 비율을 앞지르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배집단의 권력기반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잉여산물의 급속한 축적은 집단간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사회·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1) 全玉年, 〈蔚山下岱遺蹟 第2次發掘調査〉(《第36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3), 523쪽.

42) 이상 농기구에 관한 자료는 李賢惠, 앞의 글(1990), 52~60쪽 참조.

(2) 교역활동

交易이란 좁은 의미로는 물물교환을 뜻하지만 넓게는 상거래와 물물교환을 포함하는 貿易(trade)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교역이라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자원과 물품 그리고 기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삼국지》東夷傳 倭人조에 나라마다 시장이 있어 서로 필요한 것을 교역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한의 각 소국 사이에도 다양한 교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생태적 차이에 따른 근거리 교역은 비단 이 시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삼한의 정치·경제적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원거리 교역 내지는 대외교역이다. 대외교역 활동을 자극한 일차적인 요인은 漢郡縣 설치로 인한 중국산 사치품의 등장과 辰弁韓의 철자원이며, 이를 매개로 각 소국간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중국 郡縣, 倭, 三韓 사이에 활발한 국제교역이 전개되었다.

삼한의 대외교역의 중요 대상은 중국 군현과 웨이며 교역 대상에 따라 교역 형태나 교역품이 달랐다. 이 가운데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행해지는 주된 교역 형태의 하나는 朝貢貿易으로 한반도에서는 주로 낙랑군, 대방군과 같은 중국 군현을 통한 간접적인 조공무역이 일반적이었다. 중국 왕조와 公的인 관계를 맺을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은 朝貢과 冊封이라는 형식이다.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침략하지 않고 친선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치·외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이같은 약속을 효과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서로가 원하는 물자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통로를 가지는 것이다. 삼한이나 왜가 군현에 조공할 때 경제적인 면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대외적으로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거나 친선을 나타내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원거리 여행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조공 때 가져가는 물품은 우의를 표하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교역품으로 보아야 하며, 조공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교역은 조공무역으로 부를 수 있다.

《후한서》동이전에는 建武 20년(44) 韓 廉斯人 蘇馬謨가 낙랑군을 찾아 가

서 공물을 바치고 ‘韓廉斯邑郡’으로 封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삼한의 臣智들은 魏로부터 邑君·歸義侯·中郎將·佰長·都尉와 같은 다양한 관작을 받기도 했으며, 3세기 경의 상황이기기는 하지만 스스로 印綬 衣幘을 받은 韓人이 千餘人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삼한 토착사회의 중국 물자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여 주는 기록들이다. 문헌기록을 뒷받침하는 유물로 경상도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魏率善韓佰長’ 銅印과 晋代의 ‘晋率善機佰長’ 동인이 있다. 이같은 官爵 인수의 수여 과정에서 下賜와 朝貢의 형식을 통해 상당량의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군현 관리들이 그 실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공무역을 통해 중국 군현으로부터 들어 오는 주요 교역품은 의책·銅鏡·비단·環頭大刀 등 실용성보다 주로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는 데 효과적인 물품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⁴³⁾ 고구려의 경우도 비슷하여 현도군으로부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鼓吹技人(북, 피리, 樂工)과 함께 朝服, 의책을 들여 오고 있다. 倭王 卑彌呼가 魏에 遣使 조공한 댓가로 ‘親魏倭王’이란 관작과 金印紫綬를 받으면서 魏로부터 받은 하사품 중에 각종 비단과 대도를 포함하여 동경이 100매나 들어 있다는 것은⁴⁴⁾ 조공무역을 통해 들어 오는 물품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시사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조공무역 이외에 삼한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다른 하나의 교역 형태는 중국 상인들에 의한 교역활동이다. 조공무역은 중국 정부와 공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물자교환이므로 교역 품목이나 교역 물량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이에 비해 상인이라는 전문적인 중개인이 등장하게 되면 화폐 또는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교역의 매개물이 사용되기도 하고 교역 대상과 교역과정도 다양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낙랑군에 와있던 중국상인의 존재가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⁴⁵⁾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五

43) 중국제 청동거울의 제작과 관리는 정부 관할이므로 의창군 다호리, 경주 조양동, 김해 양동리유적을 비롯하여 삼한 각지에서 출토되는 漢鏡들은 모두 중국 군현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유입된 교역품으로 보아야 한다. 정확한 제작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김해 양동리유적(280호)에서 출토된 환두대도 역시 중국 군현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4)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倭.

銖錢, 王莽대의 貨泉과 같은 중국 화폐는 중국 상인 내지는 군현 거주 상인들에 의한 상거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군현 관리에 의한 공적 물자 이동과 대비시켜 私的인 상인들의 교역활동을 민간교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⁴⁵⁾

그런데 중국 화폐들은 군현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개 전남 海南이나 務安, 제주도 山地港, 경남 馬山과 金海 등 바다에 면하여 해로를 통해 외부와의 통교가 편리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상인들에 의한 민간 교역활동이 이루어지던 중요 교역 루트는 海路였으며, 그들의 직접적인 교역 대상은 주로 서남해안지역의 소국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상인들이나 外地人이 삼한지역에 들어와 교역활동을 할 경우 廉斯鏹철화에서 보이듯이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한한 해로를 통해 접근이 용이하고 내륙지방과도 통교가 편리한 곳이 교역중심지로 선호되었을 것이다. 해안의 교역 거점에 위치한 소국의 배후에는 내륙지역의 정치집단들을 연결하는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어 토산물이 교역장소로 모이지거나 교역품이 내륙 각지로 확산되는 데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소국은 대외 교역의 창구 기능을 하면서 교역품의 관리와 중개 등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남 해안의 김해지역이라 하겠다. 김해지역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낙동강 중상류 각지로 들어가는 關門에 해당되는 동시에 서해 및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요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만으로도 김해지역은 대외적인 교역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해지역을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더욱 발달하게 만든 것은 경상도지방에서 생산되는 철자원이다. 경상도 각지에서 일차적인 제철과정을 거친 철기 원료

45) 《漢書》권 28 下, 志 8 下, 地理 樂浪郡.

46) 後漢대의 활발한 私商 활동의 추세로 미루어 낙랑지역 토착세력과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오히려 內郡商人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활동 비중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尹龍九, 〈樂浪中期 郡縣支配勢力의 再編과 交易活動〉,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8, 1992, 11쪽). 이같은 견해가 타당하다면 중국 상인의 교역활동은 군현 지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군현 밖의 토착사회에까지 널리 확대되었을 것이다.

가 낙동강이나 해로를 통해 김해지역으로 운반되고, 이러한 철을 매개로 낙동강 하구지역에는 東濊와 馬韓은 물론 倭·樂浪·帶方 등 각지의 교역품들이 모여들고 이러한 물자들은 다시 각 소국간의 교역망을 통해 경상도 각지로 확산되어 나갔을 것이다. 진변한에서는 각종 물자의 구매에 철이 화폐와 같이 사용된다는 《삼국지》동이전의 기록은⁴⁷⁾ 바로 철을 매개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교역활동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상인을 통해 들어오는 교역품들은 정치적인 권위나 지위를 상징하는 물품보다 비단·漆器·水晶이나 유리제 장신구 등 경제적 부를 과시하는 사치품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중국 상인들이 가져오는 교역품 중에는 중국산뿐 아니라 낙랑에서 생산되는 비단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낙랑의 비단은 원료인 生絲를 濊·弁韓·倭 등지에서 가져다가 낙랑에서 가공한 것으로 중국에까지 알려진 우수한 교역품이었다고 한다.⁴⁸⁾

삼한지역에는 중국산과 낙랑산 이외에 북방계 유물과 倭系 유물들도 적지 않게 유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해 양동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청동제 용기는 낙랑이나 東濊와의 교역 과정에서 들어온 북방계 교역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왜로부터 들어오는 교역품에는 倣製鏡이나 실용성이 퇴색된 儀器化된 청동제품들이 많고 그 대부분이 경상도지역과 남해안 일대에 분포되어 있어⁴⁹⁾ 倭人들의 교역의 중요 관심이 철자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한의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 기반은 이미 철제 무기와 같은 물리적인 힘에 의존해가는 추세였으므로 왜계의 비실용적인 청동제 矛나 戈에 대한 수요는 상징적인 권위나 존엄성에 바탕하는 祭政一致 단계의 족장들의 遺習이 일부 잔존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삼한지역에서는 이미 철제 무기와 생산도구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청동기 생산과 제작에 대한 관심이 쇠퇴되고 있었으므로, 이같은 배경하에서 왜계 청동제품의 유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3세기에 들어 오면 삼한의 대외교역에 일부 변화가 나타난다. 그

47)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48) 尹龍九, 앞의 글, 10~11쪽.

49) 李賢惠, 앞의 글(1994), 48~49쪽 참조.

하나는 조공무역의 중심지가 樂浪郡에서 帶方郡으로 옮겨간 것이다. 다른 하나는 3세기 후반 삼한의 토착집단들이 요동의 東夷校尉를 통해 晉 本國과 직접적인 조공무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261년 樂浪外夷韓濊貊이 種屬들을 거느리고 와서 조공하였다는 기록에⁵⁰⁾ 이어, 277년에는 馬韓이 진 본국에 遣使한 것을 시작으로 290년까지 마한과 진한이 여러 차례 진 본국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⁵¹⁾ 3세기 후반 진과 원거리 교역을 수행하던 토착사회의 대표적인 세력들은 마한과 진한 그리고 전남 해안지역의 정치집단들로 대별된다. 이것은 韓族사회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한 간접적인 對中國 교역에 만족하지 않고 진 본국에까지 왕래함으로써 본격적인 원거리 국제교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 한강유역의 夢村土城에서는 西晉代(기원후 265~316)의 灰釉 錢文陶器片이 출토되고 있어 원거리 교역의 실상을 유물로 입증해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대륙의 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토착사회의 내적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3세기 이전까지는 낙랑군이 대중국 조공무역 및 민간교역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으나 180년 이후 後漢이 혼란기에 들어가고 204년 경 요동반도의 公孫氏가 황해도지방에 대방군을 설치한 이래 낙랑군을 대신하여 對韓·對倭 접촉의 공식적인 창구가 대방군으로 옮겨 갔으며, 이같은 상태는 238년 공손씨가 魏에 의해 멸망되고 낙랑군과 대방군이 위 관할하에 들어간 후에도 이어졌다. 공손씨 진출과 위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의 교역품 공급도 여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은 삼한지역 토착사회에 대해 경제적인 관계보다 정치적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⁵²⁾ 그러므로 사치품 공급원으로서의 중국 군현의 경제적 기능의 쇠퇴와 교역활동의 상대적 위축이 원거리 대외교

50) 《三國志》권 4, 魏書 4, 沙帝紀 4, 陳留王 景元 2年.

51) 《晉書》권 97, 列傳 67, 東夷傳 및 권 3, 帝紀 3, 武帝.

52) 魏 正始 7년(246) 部從事 吳林이 辰韓 八國을 낙랑에게 분할하려다가 韓族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간 대방군이 장악해오던 韓에 대한 조공무역의 관할권을 일부 낙랑군에게 분할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 시점을 계기로 그간 위축되었던 낙랑군의 對韓 조공무역권이 일부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역을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원거리 국제교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교역품의 물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교역품에 대한 토착사회 자체의 요구량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거리 국제교역은 다량의 생산물을 모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조직의 발달없이는 불가능하며 이같은 조직은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교역의 구심체가 등장하면서 개별적인 교역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기도 하고 원거리 교역이 郡縣과의 교역보다 위험 부담도 크지만 교역 물량과 품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원거리 국제교역이 전개되면서 多元의이고 산발적인 상태의 대외교역 활동은 점차 지양되고 일정한 구심점을 축으로 하는 조직적인 교역체계가 각 지역별로 성립되었다.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달 과정에서 교역활동이 갖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질 수 있겠으나 삼한의 경우 교역활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교역활동을 자극한 일차적 요인은 중국산 사치품의 등장과 辰弁韓의 철자원 개발이지만 토착사회를 철기문화적 사회단계로 전환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교역활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교역품의 출현은 지배계층의 교역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이들로 하여금 원하는 교역품을 얻기 위해 잉여산물의 축적과 생산력 증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그리고 교역을 통해 확보된 철기와 권위를 상징하는 물품들은 다시금 생산력 증대와 잉여산물 확보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교역을 통해 다른 집단과 접촉함으로써 각종 이념이 수용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용이하게 유도되기도 한다. 3세기 후반 진한과 마한의 이름으로 진 본국과 조직적인 무역관계를 가질 정도의 확대된 政治體가 출현하고, 뒤이어 진한과 마한이 각각 신라와 백제국가로 발전한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삼한사회 자체의 이같은 정치·경제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1~3세기대의 대규모의 土壙木棺墓와 土壙木槨墓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부장품의 존재 역시 이같은 토착사회의 정치·경제적 성장에 대한 전제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3) 계층 분화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삼한은 이미 계층분화가 상당히 진행된 사회였다. 국읍의 주수를 비롯하여 읍락의 족장들은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지배계층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도구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대외교역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의 권력 기반을 확대해나갔다. 다호리유적에서 나온 붓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중국인과의 접촉에서 제한적이거나 한자를 이해하고 있었고 생활용기로 철기를 사용하였으며, 수정이나 유리로 만든 장신구로 몸치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아직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일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사료국의 예를 보면 南解次次雄과 같은 국읍의 지배자는 차차웅이 巫를 뜻한다고 하였으므로 원래는 제사장 또는 샤먼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昔脫解설화에 의하면 그는 冶匠 출신인 동시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新시베리아족으로 알려져 있는 야쿠트족(Yakuts)의 속담에는 ‘대장장이와 샤먼은 한 등우리에서 나왔다’거나 ‘대장장이는 샤먼의 큰 형님이다’라고도 하여 철을 다루는 전문인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과 동일시되고 있다.⁵³⁾ 이는 철기 제작기술 내지는 기술을 가진 집단에 대한 외경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처럼 초기의 지배집단 중에는 철의 관리나 철기 제작기술을 권력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족장 계층 아래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읍락의 일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삼국지》동이전에서는 下戶라고 칭하고 있다. 고구려와 부여지역에서는 읍락민의 계층 분화가 크게 진전되어 노비와 비슷한 상태로 몰락한 빈한한 농민을 가리키는 뜻으로 하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삼한 읍락민의 경우 계층간의 격차가 이들 지역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낙랑과 대방군에 가까운 지역의 하호들은 중국제 의복과 모자를 빌려 쓰고 군현과의 교역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왜인전에 의하면 大人은 4~5명의 부인

53) 李杜鉉, 〈단골巫와 冶匠〉(《정신문화연구》 1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98쪽.

을 거느리고 하호들 중에도 2~3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각 무덤들 사이에도 뚜렷한 묘역의 구분이나 차등이 존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3세기 이후의 대형 목곽묘 축조 단계에 오면 대형 분묘들이 능선부를 집중적으로 차지하는 등 분묘 입지상에도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분묘유적들도 묘광의 규모와 부장된 유물의 질과 양 면에서 대·중·소의 세 종류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⁵⁴⁾ 이 때가 되면 읍락민 사이에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읍락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보다 다양해졌다.

삼한의 읍락에는 하호 이외에 노비가 있었다. 노비 발생의 일반 예에 비추어 삼한의 노비 역시 그 대부분이 형벌을 받은 자, 채무를 갚지 못한 자, 전쟁 포로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생산활동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된 《魏略》에 韓地에 들어와 벌목을 하다가 잡힌 漢人들이 노예가 되어 머리를 짧게 깎고 밭에서 새를 쫓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廉斯鏑설화의 기록이 있어 노예제사회설의 중요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비의 노동력이 생산활동에도 이용되고 있었다고 해서 모든 농업생산활동이 노비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삼한의 농업생산을 담당한 주요 계층은 하호로 불려진 대부분의 일반 읍락민들이었다고 생각된다.

〈李賢惠〉

2. 삼한의 문화

1) 삼한의 생활과 풍속

삼한의 생활양식 중 먼저 주거에 관한 기사를 보면 馬韓人은 움집에 살았는데 모양이 무덤 같았다고 하며, 辰弁韓의 가옥은 나무토막을 가로로 쌓아

54) 李盛周, 앞의 글.

올려 그 모양이 마치 중국의 감옥과 같다고 하였다. 분묘에 비해 집자리유적에 관한 고고학적 조사자료는 그리 많지 않으나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주거지 평면은 원형·방형·말각방형 등으로 다양하고 집의 형태는 움집과 반움집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는 풀과 진흙을 섞어 벽체를 형성하였고, 지붕은 갈대나 이엉으로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그리고 경남 함천 大也里 집자리에서는 爐址가 모두 가옥의 서쪽에 갖추어져 있어 변한은 부엌이 모두 집 서편에 붙어 있다는 동이전의 기록과 대비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경남 김해 鳳凰臺 주거지내에서는 노지가 한 기도 발견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김해지역에서는 노지가 없는 편이 우세하다고 한다.²⁾ 그러나 한강유역의 漢沙里유적에서는 주거지 북쪽에 부뚜막시설이 발견되기도 하고,³⁾ 김해 봉황대와 府院洞 A지구에서는 高床家屋이 조사되어 지역과 용도 및 계절에 따라 가옥의 형태도 다양하였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의 부족으로 계층에 따라 가옥의 크기나 구조에 차이가 있었는지 혹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취락 주변을 둘러싼 방어시설에 대해 진변한에는 성곽이 있으나 마한에는 성곽이 없다고 하였다. 방어시설의 유무는 정치적 긴장관계의 반영이므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곤란한 면도 있으나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마한이나 진변한의 구분없이 성곽시설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전북 扶安郡에서도 표고 20~100m 높이에 위치한 토성유적이 다수 조사 보고되고 있으며⁴⁾ 경상도지역에서도 취락유적지 주변에 설치된 木柵이나 環濠시설의 조사예가 늘어나고 있다. 근래 조사된 대표적인 것으로 김해 봉황대유적이 있으며 이 유적에서는 1993년 조사시 의창 다호리 유적과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폭 2.5m, 깊이 1.5m의 단면 U자형 환호가 발굴되었고 환호의 바깥쪽으로 목책 구멍 5개가 조사되었다.⁵⁾ 이 밖에 대구

1) 崔夢龍·金庚澤, 〈全南地方의 馬韓 百濟時代의 住居址研究〉(《韓國上古史學報》 4, 1990), 15쪽.

2) 李在賢, 〈金海鳳凰臺遺蹟 2차發掘調査概要〉(《第36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3), 548쪽.

3) 고려대학교 발굴조사단, 《漢沙里》 5(학연문화사, 1994), 120·182·331쪽.

4) 全榮來, 〈扶安地方 古代圍郭遺蹟과 그 遺物〉(《全北遺蹟調査報告》 4, 1975).

達城유적이거나 梁山貝塚, 창원 加音丁洞 堂山貝塚 등에서도 목책과 환호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취락 주위에 설치된 방어시설의 구체적 모습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삼한의 城柵 또는 성곽은 기본적으로 무문토기시대 이래의 목책과 환호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중국 군현과의 접촉을 통해 토성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서 토루를 쌓아 목책을 보강한 형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시설은 일반 취락에까지 해당되는 시설물은 아니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노동력 동원과 성곽 축조작업의 주관자를 ‘官家’로 표현하고 있어 방어시설의 축조가 정치적 지배자에 의해 주도된 것임을 나타낸다. 성곽 축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며 노동력 동원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방어시설은 정치·경제활동의 중심 취락인 국읍과 읍락에 국한되었다.

복식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삼한에서는 비단을 포함하여 각종 布가 생산되었으며(縣布·縑布·廣幅細布), 베두루마기와 짚신 혹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한다. 삼한인들은 금은과 화려한 비단은 진기하게 여기지 않고 구슬을 소중하게 여겨 의복에 장식하거나 목걸이 또는 귀걸이로 달고 다녔다고 한다. 구슬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청동기시대 이래의 습속으로 청동기시대의 족장들이 착용한 대롱구슬이나 天河石製 飾玉으로 만든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청동거울과 함께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삼한에 이르러 장신구의 재료가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나 수정으로 바뀌고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주술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유리나 수정제 장신구들은 중국산 수입품으로 대부분이 지배계층의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신분과 경제적인 부의 상징으로서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한인들은 상투모양으로 머리를 틀어 올렸고, 변한인들은 의복이 청결하고 머리가 길었다고 한다. 廉斯鎰설화에 漢人노예들이 머리를 짧게 깎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긴머리나 땃상투머리는 노비와는 다른 일반 읍락인들의 머리 모양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삼한인들은

5) 李在賢, 앞의 글, 542~549쪽.

중국제 의복과 모자를 좋아하였다거나 중국 군현을 방문할 때 중국제 옷과 모자를 빌려 입는다고 하였으므로 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지배계층의 인물들은 권위를 나타내는 모자나 관식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변진인들은 앞면에 뿔모양 장식을 붙인 관모를 썼기 때문에 변진이란 명칭이 붙여졌다는 해석도 있다.⁶⁾

《삼국지》동이전에 의하면 삼한에서는 파종을 끝낸 5월과 농사일을 마무리한 10월 두 차례에 걸쳐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밤낮으로 즐겼다고 한다. 수십 인이 서로 동작을 맞추어 땅을 밟으면서 몸을 낮추었다 올리는 동작의 춤이었는데 가락이 鐸舞를 닮았다고 하였다. 땅을 밟는 동작은 大地神을 즐겁게 하고 땅의 생육력을 높여 풍요를 기원하는 穀靈을 포함한 地靈에 대한 제사의식에 속한다고 한다.⁷⁾ 이러한 地神에 대한 祭儀와 대비되는 것이 天神에 대한 제의로 삼한에서도 국읍의 天君이 주관하여 천신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천신에 대한 제사는 북방계 샤머니즘에 원류를 두는 제의로 부여·고구려·동예에서는 10월에 거행하는 수확제가 천신에 대한 제사로 되어 있다.⁸⁾ 삼한에서 거행되는 농경의례가 천신과 지신 두 계통이 이미 융합된 형태인지 아니면 5월의 제의와 10월 수확제가 내용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地靈에 대한 제사가 더 원초적인 것이고 천신에 대한 제사가 좀 더 발달한 농경 단계의 제의로 간주되고 있어,⁹⁾ 삼한의 농경제 행사에 踏地하는 풍속이 남아 있다는 것은 북방지역과 구별되는 삼한의 생산과 문화 기반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라 하겠다.

이 밖에 삼한에는 蘇塗신앙이 있었다. 각 국에는 別邑이 있어 소도라 이름하였는데 큰 나무를 세워 북과 방울을 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가면 잡아올 수 없었으며 소도를 세운 뜻은 불교와 같으나 선악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소도에 대해서는 읍락간의

6)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290쪽.

7) 三品彰英, 〈銅鐸小考〉(《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1973), 15~25쪽.

8) 三品彰英, 위의 책, 246~248쪽.

9) 三品彰英, 위의 책, 15~17쪽.

경계 표지를 겸하여 부락의 경계신 내지는 부락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이라는 해석과¹⁰⁾ 함께, 소도는 삼한의 천군이 있는 곳인 동시에 봄과 가을에 걸쳐 천군이 농경의례를 거행하는 곳이라는 해석도 있다.¹¹⁾ 이와 달리 소도신앙은 읍락단위의 부락제에서 발전한 것으로 소국 성립 이후 여러 읍락에서 거행되던 개별적인 제사행위를 하나로 묶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¹²⁾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소도가 있는 곳은 주민들의 일반 거주지역과는 구별되는 장소로 소도에서는 북과 방울이 그들이 믿는 귀신과 더불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 자체가 신성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소도를 세운 뜻이 불교와 같다는 것은 소도가 종교적인 기능을 가진 예배장소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개인적인 기복행위뿐 아니라 집단의 안녕이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행사가 행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특히 방울은 세형동검문화 단계 이래 중남부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儀式用具의 하나로 소도신앙이 청동기문화 단계 이래의 토착신앙이 계승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도에서 숭배되는 귀신이 어떤 종류의 신이었는지, 소도신앙의 주관자와 천군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의문점이 적지 않다.

요컨대 삼한사회는 청동기문화 단계의 단순하고 복합적인 상태의 원시신앙과 제의가 철기문화의 보편화와 유이민의 정착,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문화요소를 가미하면서 농경축제·제천의식·소도신앙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의 양상도 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삼국지》동이전에 변진은 진한과 섞여 있으며, 의복 거처도 모두 진한과 같고, 언어 법속도 서로 닮았으나 귀신을 섬기고 제사지내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진한과 변한은 종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일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10) 孫晉泰, 〈蘇塗考〉(《韓國民族文化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11) 金貞培, 〈蘇塗의 政治史的 意味〉(《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 出版部, 1986), 160쪽.

12) 金杜珍, 〈三韓 別邑社會의 蘇塗信仰〉(歷史學會 編,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102~103쪽.

이같은 현상은 청동기문화 단계에서 철기문화 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제의와 신앙상에 나타나는 지역별 특성이 형성된 결과라고 하겠다.

삼한의 장례 풍속에 대한 기록을 보면 棺은 있으나 槨은 없다고 하였으며 진변한에서는 큰 새의 깃털을 함께 묻어 주었는데 이는 죽은 자가 날아 오르기를 바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해 기원후 2세기까지의 진변한의 중심 묘제는 지하에 장방형의 흙구덩이를 파고 나무로 만든 관에 주검을 넣어 매장하는 土壙木棺墓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처음에는 통나무를 세로로 켜서 속을 파내어 관의 몸체와 두경을 만든 통나무관을 썼으나 이후 판재로 된 나무관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의창 茶戶里고분들은 통나무목관의 대표적 예로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굴참나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2세기 이후가 되면 매장 주체부가 확대되면서 대형 무덤을 중심으로 목관 바깥에 목곽시설을 한 土壙木槨墓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무덤 속에는 주인공이 살아 있을 때 사용하거나 소유했던 각종 물건들이 부장되었다. 생활용기와 무기 및 생산도구를 비롯하여 제의에 사용된 음식물이 제사용기에 담겨져 함께 매장되었으며 주인공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종류와 수량이 다양하였다. 마한지역의 분묘유적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많지 않으나 최근 토광목관묘와 토광목곽묘를 매장 주체부로 하여 둘레에 周溝 즉 물도랑을 돌린 주구묘가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주구묘는 진변한지역에서도 조사되고 있어 삼한의 중요 묘제의 하나로 주목된다.¹³⁾ 이 밖에 삼한에서는 甕棺墓(독무덤)도 널리 쓰이고 있었는데 옹관묘는 주로 소아용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목관묘나 목곽묘와 같은 중심 묘제에 부수되어 나타나는 陪葬墓의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 시대의 옹관묘는 지표상에 얇은 구덩이를 파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토기를 서로 맞대거나 두경을 덮어 관으로 사용하여 주검을 매장한 것이다. 마한지역은 목관묘나 목곽묘보다 옹관묘의 비중이 더 컸으며 마한의 중심 묘제는 옹관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¹⁴⁾ 특히 영산강유역의 마한 소국에서는 3세기 말~4세기 이후 고분출현기에 이르러 옹관을 매장시

13) 考古學部,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1996), 323~379쪽.

14) 崔盛洛, 《全南地方 原三國文化의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178~179쪽.

설로 하는 대형의 봉토고분이 유행하였다. 이처럼 옹관묘가 성인을 위한 장제로 발전하면서 일상용기가 아니라 매장용 옹관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옹관묘의 강한 전통을 나타내는 지역도 있다.

진변한지역의 특이한 습속으로 扁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 편평하게 하였는데 지금 진한인은 모두 편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해 禮安里 85호와 99호 고분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계측치 분석 결과 편두 사실이 입증되므로 편두 습속은 진변한 모두에 해당되며, 이는 세계 각지의 원시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頭蓋變形의 습속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한의 남자들은 때때로 문신을 한다’거나 진변한조에 ‘倭에 가까운 지역의 남녀는 문신을 한다’고 하여 삼한의 문신 풍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남방아시아 계통의 문화요소가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¹⁵⁾ 또한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삼한에서도 卜骨의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남 熊川패총과 부산 朝島패총에서는 사슴의 뿔에 평행선을 새긴 복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김해 부원동 A지구와 C지구에서도 산돼지의 견갑골과 사슴의 뿔을 이용한 복골이 발견되었으며, 전남 해남 群谷里패총에서도 사슴과 돼지의 견갑골을 이용한 복골이 확인되었다.¹⁶⁾

2) 삼한의 유적과 유물

삼한이 존속했던 시기는 고고학상으로 原三國時代에 해당된다. 원삼국시대는 金海時代·熊川期 또는 초기 철기시대 등으로 불리던 시기이며 기원후 1~3세기가 중심이다. 원삼국문화라는 용어는 원초 단계의 삼국문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고구려와 삼한지역 간의 문화 수준의 편차로 인해 초기 고구려문화를 포괄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는 삼한지역의 문화만을 다루고 있어 문제가 있다.¹⁷⁾ 말하자면 현재 고고학에서 말하는 원삼국시대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던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토착사회가 본격적인 철기

15) 金廷鶴, 〈加耶의 歷史와 文化〉(《韓國上古史研究》, 汎友社, 1990), 223~228쪽.

16) 金廷鶴, 위의 글, 228~230쪽.

17) 李賢惠, 〈原三國時代論 檢討〉(《韓國古代史論叢》 5, 1993), 7~33쪽.

문화 단계로 전환되어가는 시기로 철기문화의 확산에 따라 무기와 생산도구의 철기화, 새로운 토기 제작기술의 등장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던 단계이다. 현재 이 시기에 대한 고고학계의 연구는 삼한의 묘제와 철기 및 토기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토기와 철기에 대한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삼한의 문화 성격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철 기

중남부지역의 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시기구분이나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력 기원을 전후하여 이전 3세기간은 초기 철기시대로, 이후 3세기간은 원삼국시대로 양분하는 방식이다.¹⁸⁾ 이에 대해 서북지방에 비해 철기문화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전남지방의 경우 기원전 2세기 말 이후 위만조선계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확산되고 그 연속선상에서 원삼국문화가 발전하고 있으므로 마한의 철기문화를 초기 철기시대와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가 나온 바 있다.¹⁹⁾ 이와 달리 한반도 전체의 철기문화의 전개과정을 4단계로 세분하여 삼한의 철기문화를 3, 4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⁰⁾ 또는 중남부지역의 철기문화를 철기사용 개시기(기원전 2세기), 낙랑철기의 영향기(기원전 1세기), 철기문화의 발전기(기원후 1~3세기)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²¹⁾ 각 견해 사이에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기원전 2세기 말~기원전 1세기대를 중남부지방 철기문화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획기로 잡고, 이를 삼한 철기문화 형성의 직접적인 토대로 간주하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

현재 중남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장 오랜 철기유적은 기원전 2세기경으로

18)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 1986), 101~144쪽.

19) 崔盛洛, 앞의 책, 238쪽.

20) 崔鍾圭, 《三韓社會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3). 제3기는 기원전 1세기 후반~기원후 2세기 전반, 제4기는 기원후 2세기 후반~3세기로 편년하고 있다.

21) 李南珪, 《三韓鐵器文化의 成長過程》(《三韓社會와 考古學》, 제1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발표요지, 1993), 45~55쪽.

편년되는 전남 장수 南陽里, 충남 唐津 素素里, 충남 扶餘 合松里 유적으로 각 유적마다 다량의 청동기와 함께 철제 도끼와 끌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모두 戰國계 철기문화에 속하는 鑄造철기로 이들이 완성된 제품으로 유입되었는지 현지에서 제작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이 종류의 철기가 같은 시기 경상도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한반도 서북지방과 교섭이 빈번하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는지는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이 철기유물들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진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유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대에 이르면 철기유물과 유적이 경상도지역에서 집중 출토되고 제작방법과 형태 및 종류도 많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경주 九政洞·入室里·朝陽洞·대구 坪里洞·飛山洞·삼천포 勒島, 그리고 의창 다호리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들도 다시 기원전 1세기 전반 이전의 것과 기원전 1세기 후반 이후의 것으로 세분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이 단계 철기들은 漢代 철기의 계보를 잇고 있고, 제작 방법이 鍛造라는 점, 무기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철기의 종류와 수량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전단계의 철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²²⁾ 예를 들면 무기로는 鐵劍·鐵矛·鐵戈·鐵鏃 등이 만들어졌고, 용도에 따라 도끼의 종류나 형태도 다양하며, 이 밖에 철제 따비·괘이·낫·손칼 등과 같은 농공구를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문화요소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동시에 전단계의 문화요소도 강하게 계승되고 있다. 이 단계 철기의 대부분이 단조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형태상으로도 한대 철기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데 비해 쇠괘이만은 주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형태상으로도 戰國系 철제 도끼와 괄의 특징이 섞여 있다. 그리고 다호리에서 출토된 철모들 중에서는 형태상으로 전국계 철모와 연결되는 것이 다수 있어²³⁾ 한의 철기문화 요소 이외에 전국계 철기문화 요소가 혼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2) 崔鍾圭, 앞의 책, 113쪽.

23) 崔鍾圭, 위의 책, 121~122쪽.

鐵戈·板狀鐵斧·철제 따비는 형태상 토착적인 문화요소를 강하게 반영하는 철기들로 손꼽힌다.

한군현이 설치된 것이 기원전 108년이므로 이론상 한나라 철기문화 유입의 上限은 기원전 2세기 말에서 1세기 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의 정착에 소요되는 일정한 경과기간이 감안되어야 한다. 낙랑군지역의 정치적 추이를 보면 漢四郡 설치 초기에는 漢 武帝의 강력한 대외정책의 추진으로 토착세력의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²⁴⁾ 그러므로 낙랑군은 내부 통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정이었고 이로 인해 군현 이외의 토착세력과의 적극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낙랑군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군현 외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한의 선진기술이 韓의 토착사회에 적극적으로 파급될 수 있었던 것은 武帝 死後 군현 내부의 정치적 안정이 확립되는 기원전 1세기 중엽 이후에야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군현 설치 이후 약 반세기 동안은 위만조선의 멸망과 유이민의 이동으로 위만조선계 철기문화가 중남부지역으로 파급되면서 독자적인 철기문화 발전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변한이 대내외에서 필요로 하는 다량의 철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은 이같은 토착사회 자체내의 철기문화의 바탕이 있었고 여기에 한의 발달한 철기 제작기술이 복합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삼한의 철기문화는 목곽묘가 출현하는 기원 2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질적·양적으로 또 한차례의 현저한 발달을 하였다. 즉 세형동검을 원형으로 하는 철제 단검이 사라지고 80cm 내외의 철제 大刀가 출현하는 것은 製鋼 기술상 일정한 발전이 있었던 것을 뜻한다. 또한 이 단계가 되면 철축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철축은 소모성 무기이므로 지속적인 공급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편화되기 어렵다. 그런데 부산 老圃洞 31호묘에서 한 개인이 100여 점 이상의 철기를 부장할 정도로 철축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전 단계에 비해 철기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났던 것

24) 漢의 위만조선 정복에 협조한 右渠王의 아들 幾侯가 낙랑군 설치 4년 여만에 모반죄로 죽게 되고 尼谿相 參 역시 기원전 99년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죽게 된다(《漢書》 권 17, 表 5, 景武昭宣元成功臣).

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容器의 철기화가 두드러지는데 이 역시 철기 제작기술상 일정한 발전을 전제로 한 현상이다.²⁵⁾

철기 유물에 대한 형식학적 연구의 차원을 넘어 철기 제작기술의 발달과정과 제작 규모, 관리체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철기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제철관련 遺構에 대한 폭넓은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철기와 관련된 각종 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연후에야 삼한사회내에서 철기문화가 발휘했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2) 토 기

토기는 흙으로 빚어 만든 생활용기의 하나로 식생활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유물이다. 특히 고고학 연구에 있어 토기는 특정 사회의 문화성격을 밝히고 유물 유적의 편년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新시베리아족으로 알려져 있는 야쿠트족(Yakuts)의 속담에 ‘최초의 대장장이와 최초의 샤먼 그리고 최초의 陶工은 형제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다같이 불의 지배자라는 친연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²⁶⁾ 이는 철기 제작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토기 제작상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토기는 토기문화 자체로서의 중요성 못지 않게 철기문화의 전개 과정을 비롯하여 사회의 전문화의 진행 정도 등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라고 하겠다.

철기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는 無文土器가 硬質의 무문토기로 바뀌고 재래의 무문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토기가 등장한다. 토기의 기종이 다양해지고 외형상으로 형태와 색깔이 달라질 뿐 아니라 제작 기법상으로도 무문토기와 달리 바탕흙이 泥質점토로 精選되고, 토기제작시 회전판이 사용되며, 기벽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打捺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토기 가마도 노천窯에서 폐쇄적인 登窯로 구조가 바뀌고 燒成 온도

25) 崔鍾圭, 앞의 책, 129쪽.

26) 李杜鉉, 〈단골巫와 治匠〉(《정신문화연구》 16-1, 1993), 198쪽.

도 크게 높아져 무문토기보다 훨씬 단단한 질의 토기가 만들어진다. 토기상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변화를 둘러싸고 연구자에 따라 기술적 배경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토기의 분류 기준과 명칭도 다양하며, 편년도 조금씩 다르다.

원삼국토기 내지는 삼한토기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 것은 金海貝塚 출토 토기자료로 이곳에서 나온 打捺文硬陶 즉 회청색 혹은 적갈색의 타날문이 있는 硬質토기가 김해토기로 명명되면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간주되어 왔다. 이후 남해안 일대의 패총유적들과 한강유역의 風納洞土城의 발굴로 토기자료가 증대되면서 돛자리무늬(繩蓆文)를 가진 硬質회색토기 이외에도 삼한지역에서는 무문토기가 개량된 풍납동식 무문토기, 軟質의 회색 또는 적갈색 때린무늬(打捺文)토기 등 다양한 토기들이 제작 사용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²⁷⁾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경상도지역에서 瓦質土器가 출토되면서 삼한의 토기문화에 대한 활발한 논쟁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한시기 토기문제에 대한 논쟁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가장 대표적인 설은 다양한 토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중의 하나인 회색 경질의 繩蓆文土器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설정하는 것이었다.²⁸⁾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삼한토기=김해토기=회청색 경질토기라는 종래의 설을 비판하면서 삼한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와질토기이며 삼한은 와질토기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와질토기의 형식학적 분류를 토대로 삼한 토기문화의 발전과정과 편년체계를 세우고 있다.²⁹⁾

그러나 와질토기론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 하나가 타날문토기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원삼국시대의 토기에는 硬質無文土器와 타날문토기의 두 종류가 있으나 경질무문토기는 타날문토기와 共伴하면서 갑자기 硬質化하므로 타날문토기와 같은窯에서 燒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타날문토기가 명실상부한 삼한시

27) 金元龍, 앞의 책, 133쪽.

28) 위와 같음.

29) 申敬澈, 〈釜山 慶南出土 瓦質系土器〉(《韓國考古學報》12, 1982).

崔鍾圭, 〈陶質土器成立前夜와 展開〉(《韓國考古學報》12, 1982).

林孝澤, 《洛東江下流域 加耶의 土壙木棺墓研究》(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3).

대의 表識的 토기라는 주장이다. 비록 胎土에 혼합한 石粒의 양에 따라 粗質과 精質의 구분이 있으나 원삼국 초기부터 새로운 토기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타날문토기이며, 색의 차이는 還元焰系 低火度 소성과 酸化焰系 저화도 소성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종래 원삼국기의 표지적인 토기로 간주되어 온 회청색 경질토기도 타날문토기의 일종으로 연결 타날문토기보다 비율은 낮으나 원삼국 초기 단계부터 제작되었으며, 와질토기 역시 연결 타날문토기의 영남판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회전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성형을 하고, 등요에서 구워내며, 異物質이 없는 고운 점토를 사용하는 등 戰國系 製陶기술을 채용하여 만들어진 삼한지역의 새로운 토기는 타날문토기로 통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견해 차이는 토기제작상에 나타나는 기술적 변화의 배경에 대한 견해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 와질토기론에서는 새로운 토기문화의 시작을 漢式 토기의 영향으로 보는 데 비해 타날문토기론에서는 이를 戰國系 灰陶 제작기술과 연결시키고 있어 이 점에 있어서도 양설은 대조를 이룬다. 戰國 회도의 제작 기법을 주목하는 견해는 漢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 위만조선 철기문화의 영향이 작용하던 일정 시기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 위만조선 철기문화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古式 와질토기는 전국계 회도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낙랑계 토기의 제작기술과 器形의 영향이 삼한지역 토기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원후 2세기 초 新式 와질토기부터라는 견해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 속한다.³¹⁾

이상의 견해들이 삼한지역 토기문화의 발전 과정을 일원적인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에 비해 단계별로 각 유형의 토기들이 공존하면서 계기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새로운 토기문화의 시작을 경질무문토기의 출현으로부터 잡고, 이어 경질擦文土器, 적갈색 軟質土器(타날문토기), 와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등 각종 토기들이 출현시기와 유행

30) 崔秉鉉, 〈鎭川地域土器窯址와 原三國時代土器의 問題〉(《昌山金正基博士華甲紀念論叢》, 1990), 565~573쪽.

31) 李盛周, 〈原三國時代 土器의 類型・系譜・編年・生産體制〉(《韓國古代史論叢》2, 1991), 251・272쪽.

시기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조금씩 나타나던 타날문토기와 와질토기는 기원후 1세기 중반~2세기 전반에 이르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며, 회청색 경질토기의 유행시기는 타날문토기보다 늦은 기원후 2세기 말 내지는 3세기 초 이후라고 한다.³²⁾ 이와 비슷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되 여러 가지 유형으로 細分되고 있는 토기들을 대별하여 단순화시킨 경우도 있다. 한강유역 원삼국시대의 토기자료들을 기술적 유형별로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회흑색 無文樣土器의 셋으로 나누고, 각 토기 출토의 상대적 빈도를 근거로 세 종류의 토기가 모두 나오는 유적들을 전기(0~200년)로, 경질무문토기가 소멸하고 타날문토기와 회(흑)색 무문양토기만이 나오는 유적을 후기(200~300년)로 편년하였다.³³⁾

이처럼 삼한의 토기문화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기준이나 각 토기의 출현 시기에 대한 편년차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타날문토기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기원전 1세기, 기원후 1~2세기로 서로 다르며, 종래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토기로 간주되어온 회청색 경질토기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기원전 1세기로부터 기원후 3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다양하다.³⁴⁾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마한지역의 유물 유적에 대한 조사 자료의 증가를 통해 해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삼한의 토기연구는 토기의 형태나 질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토기의 생산규모나 생산방식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고식 와질토기는 半專業的인 생산체제에 의해 생산되었고, 2세기 초 신식 와질토기의 제작으로부터 전업적인 토기생산체제가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시론적 연구가 있어 이 분야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고 있다.³⁵⁾ 앞으

32) 전남지방에서는 원삼국 1기(기원전 1세기 초~기원후 1세기 중반경)에는 경질 무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타날문토기는 2기부터 조금씩 등장하여 3기(기원후 2세기 후반~3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일반화된다고 한다(崔盛洛, 앞의 책, 158·213·238쪽).

33) 朴淳發, 〈漢江流域 原三國時代の 土器樣相과 變遷〉(《韓國考古學報》23, 1989), 23쪽.

34) 金元龍: 기원전후(앞의 책, 1986, 128~134쪽), 崔秉鉉: 기원전 1세기(《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570쪽), 崔盛洛: 기원후 2세기 말~3세기 초(앞의 글, 1992, 213쪽), 崔鍾圭: 3세기 말~4세기(앞의 책, 128~134쪽).

로 토기 요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고학 자료를 통한 삼한문화 연구의 기본방향은 철기문화가 유입된 이후 高塚古墳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특정 유물 유적에 근거한 단선적 이해 방식보다 종합적인 문화성격의 부각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삼한의 문화성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특정지역이나 유물 유적에 치중되지 않고 분묘·생활유적·생산유적 등 각 부문에 걸친 유적들이 고루 조사 연구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李賢惠〉

35) 李盛周, 앞의 글, 236~286쪽.

찾아보기

[ㄱ]

- 가 加 203, 206, 212, 224, 226
가섭원 迦葉原 184
각저희 角抵戲 194, 223
간 干 206, 226
간위거 簡位居 202
갈등이론 葛藤理論 23
갈사국 曷思國 191
갈사수 曷思水 188, 191
갈석산 碣石山 86, 87, 125
감문국 甘文國 39
강상 崗上 65, 115, 120, 122, 128, 140
개국 蓋國 77
개마국 蓋馬國 187
개평(현) 蓋平(縣) 77, 79, 91
거수 渠帥 35, 213, 214
건마국 乾馬國 39
검·경·옥 劍·鏡·玉 41, 59, 62
검독 儉瀆 91
경 卿 101, 102
경질회색토기 硬質灰色土器 298
계루부 桂婁部 150, 190
계층사회 階層社會 21, 25, 27
고구려 高句麗 112, 113
〈고기〉 〈古記〉 50, 51
고리국 槁離國 5, 155, 157, 162~164, 168, 182, 184
고상현묘 高常賢墓 141
고상현인 高常賢印 37, 253
고시 楮矢 140
고아시아족(Paleo-Asiatics) 古亞細亞族 56, 57, 69
고조선계 유민 古朝鮮系 流民 97
고죽(국) 孤竹(國) 70, 78, 80
고죽명 孤竹銘 79
곡령 曲領 242
공녀 貢女 140
공병식 鑿柄式 123
공손수 公孫遂 107
공손씨 公孫氏 111, 114
공손탁 公孫度 195, 202
공열토기 孔列土器 6
공조 功曹 241, 242
과하마 果下馬 140, 245
곽박 郭璞 48, 81
관개 灌溉 25
관구검 卞丘儉 195, 240, 251
《관자》 《管子》 4, 70, 73, 81, 117, 139
관작 官爵 281
〈광개토왕릉비〉 〈廣開土王陵碑〉 181, 182, 199, 200
구가 狗加 202, 205, 211
구다국 句荼國 187
《구삼국사》 《舊三國史》 52
구석기시대 舊石器時代 69
구야국 拘邪國 39, 265
국 國 7, 31
국가(State) 國家 11, 14, 25, 27, 38
국읍 國邑 207, 267, 269
국중대회 國中大會 223, 224
군사회 群社會 27
군왕 君王 31, 33
군장 君長 1, 22, 31, 34, 114
군장사회(chiefdoms) 君長社會 17, 18, 20, 27, 41, 63, 94
군장사회론 君長社會論 1, 16

궁인 宮人 102
 궁준 弓遵 114, 240
 권람 權擘 76
 규 圭 95
 금와왕 金蛙(王) 184, 188, 202
 금주 錦州 60, 145
 기리영 崎離營 114, 274
 기마민족 騎馬民族 150
 기자 箕子 58, 76, 138
 기자동래설 箕子東來說 58, 78
 기자조선 箕子朝鮮 46, 92, 115, 117
 기후 箕侯 78
 기후명 청동기 箕侯銘 青銅器 79
 길림 吉林 5, 66, 70

[ㄴ]

나부체제 那部體制 187
 나하 那河 168, 183, 201
 나해 那奚 274
 낙랑 樂浪 37, 48, 109, 112, 136
 낙랑국 樂浪國 113
 낙랑군 樂浪郡 5, 80, 113, 129, 191
 낙랑 단궁 樂浪 檀弓 245
 낙랑태수 樂浪太守 110, 240
 난하 難河 168
 난하 濊河 64, 77, 87, 89
 남방형 고인돌 南方型 支石墓 120
 남부여 南扶餘 150
 남산근 南山根 66, 121, 123, 124
 남삼한 南三韓 7
 남성자(유적) 南城子(遺蹟) 162, 173, 176, 207, 228
 남옥저 南沃沮 170, 246
 내몽고 內蒙古 63, 124
 노남리 路南里 145
 노비 奴婢 103, 209
 노예 奴隸 215, 221
 노예국가 奴隸國家 12
 노인 路人 108, 136

노하심(유적) 老河深(遺蹟) 160, 161, 211, 220
 노합하 老哈河 64, 86
 녹산 鹿山 152, 153, 197
 《논형》《論衡》 153
 농안 農安 176
 농안성 農安城 180
 누상 樓上 65, 120, 123, 128
 嫩江 嫩江 70

[ㄷ]

다인장 多人葬 65
 다호리 茶戶里 277
 단결문화 團結文化 170
 단군 檀(壇)君 2, 50, 52, 55, 72
 단군릉 檀君陵 2, 46, 76
 단군신화 檀君神話 52, 58, 73
 단군왕검 檀君王儉 50, 72
 단군조선 檀君朝鮮 46, 58, 115, 117
 단석괴 檀石槐 169
 단수신 檀樹神 50
 단장목곽묘 單葬木槨墓 133
 대가 大加 149, 195, 204, 211
 대개석묘 大蓋石墓 61, 62, 120
 대국 大國 31
 대동강 大同江 74, 75
 대랍한구 大拉罕溝 123, 124
 대릉하 大凌河 64, 77, 78, 89
 대무신왕 大武神王 113
 대방군 帶方郡 112
 대방령 帶方令 110
 대방태수 帶方太守 114, 240
 대부 大夫 93, 94
 대부 예 大夫 禮 82
 대사 大使 202, 204, 205, 211, 212
 대사자 大使者 202, 204, 211
 대소 帶素 184, 188, 202
 대신 大臣 101, 107
 대인 大人 217, 218, 231

대해맹(유적) 大海盟(遺蹟) 159, 219
 데릴사위제도 壻屋制 257
 도시 都市 24, 30
 도시국가 都市國家 14
 도씨검 桃氏劍 40, 120
 도위 都尉 110, 281
 도절 都切 190
 동경 銅鏡 59, 128
 동과 銅戈 132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75
 《동국통감》《東國通鑑》 73, 75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 76
 동단산 東團山 125, 162, 173, 228
 동맹제 東盟祭 222
 동명 東明 6, 154
 동명묘 東明廟 150
 동명성왕 東明聖王 199
 동명신화 東明神話 153, 181
 동모 銅鉞 128
 동방적노예 東方的奴隸 215
 동부 銅斧 128, 220
 동부도위 東部都尉 112, 239
 동부여 東夫餘 150, 181, 184~188, 199
 《동사강목》《東史綱目》 48, 75
 동예 東濊 6, 237
 동옥저 東沃沮 6, 149, 209
 동이교위 東夷校尉 196
 동이족 東夷族 62, 67
 동이현 東廳縣 239, 240
 동천왕 東川王 251
 동호 東胡 64, 78, 82, 99, 121, 123, 145
 동호족 東胡族 67, 157, 163
 두막루(국) 豆莫婁(國) 6, 201, 226
 둔유현 屯有縣 112

[ㄹ]

랜프류 C. Renfrew 21
 루이 R. H. Lowie 24

[ㅁ]

마가 馬加 202, 205, 211
 마르크스 K. Marx 12
 마여(왕) 麻余(王) 202, 204
 마한 馬韓 7, 192, 195
 마한소국연맹체 馬韓小國聯盟體 273
 만변한 滿潘汗 75, 79, 83
 말갈 靺鞨 200
 망해둔(문화) 望海屯(文化) 155, 162, 168
 망해둔-한서 상층문화 望海屯-漢書上層文化 155
 맞이굿 迎神祭 222
 매구루 買溝婁 185, 200
 매구여 賣勾余 200
 맥 獬 67, 69, 70, 123
 맥인 獬人 157
 맥족 獬族 70
 명도전 明刀錢 117, 128~131, 141, 142, 145, 184
 〈모두루묘지명〉〈牟頭婁墓誌銘〉 182, 186, 197
 모르간 L. Morgan 12
 모아산 帽兒山 162, 174, 210, 220
 모여근 慕輿根 197
 모용각 慕容恪 197
 모용씨 慕容氏 6, 192
 모용외 慕容廆 195, 196
 모용준 慕容儁 197
 모용황 慕容皝 177, 197
 목지국 目支國 31, 35, 39, 273, 274
 목책 木柵 270, 288
 무순 撫順 123, 145
 무씨사당 화상석 武氏祠堂 畫像石 54
 무천(제) 舞天(祭) 222, 244
 묵방리형토기 墨房里型土器 119, 123
 문피 文皮 139
 문현 文縣 83

물길 勿吉 178, 201
 미구루 味仇婁 185, 200
 미구루압로 味仇婁鴨盧 206, 207
 미송리-강상시기 美松里-岡上時期 116
 미송리식(형)토기 美松里式(型)土器 60,
 65, 66, 116
 민머느리제 預婦制 257

[ㅂ]

박사 博士 95, 97, 102
 박천강 博川江 75
 반량전 半兩錢 131, 145
 반월형석도 半月形石刀 132
 발조선 發朝鮮 139
 발족 發族 123
 방제경 倣製鏡 283
 백금보(문화) 白金寶(文化) 5, 155,
 163, 168, 218
 백금보-한서 (하층)문화 白金寶-漢書
 (下層)文化 155, 157, 183
 백담운 白南雲 11
 백돌말갈 伯咄靺鞨 178
 백랑수 白狼水 90
 백장 佰長 281
 번예 樊濊 35
 번한현 番汗縣 83
 베버 Max Weber 14
 변한 弁韓 7, 275
 변형 고인돌 變形 支石墓 61, 120
 복래동고성지 福來東古城址 173, 206
 복합사회 複合社會 20
 부(왕) 否(王) 32, 96
 부여 夫餘 5, 6, 65, 125, 181, 199
 부여성 扶餘城 176~178, 206
 부여족 夫餘族 149, 151, 157
 부조예군 夫租穢君 7, 37
 부조예군묘 夫租穢君墓 141, 254
 부조읍군 夫租邑君 254
 부조장인 夫租長印 38

부조현 夫租縣 239, 247
 부조현장 夫租縣長 253
 부족(Tribe) 部族 14, 20
 부족국가 部族國家 12~14
 부족국가론 部族國家論 1
 부족사회 部族社會 27
 부족연맹 部族聯盟 13
 부채노예 負債奴隸 215
 부태 夫台 195
 북방식 고인돌 北方式 支石墓 61,
 120
 북방식 동검 北方式 銅劍 64
 북부여 北夫餘 150, 181, 182, 184, 186
 북부여수사 北夫餘守事 182
 북삼한 北三韓 7
 북옥저 北沃沮 170, 187, 196, 246
 북이 北夷 154, 182, 183
 불내 不耐 242
 불내예왕 不耐濊王 36, 242
 불내후 不耐侯 36
 불이(내)현 不而(耐)縣 239
 불합문화론 不成文化論 53
 비류국 沸流國 186
 비사마압로 卑斯麻鴨盧 206
 비왕 裨王 101, 102, 107, 136
 비트포겔 K. A. Wittfogel 24
 비파형동검 琵琶形銅劍 3, 40, 65, 66,
 117
 비파형청동단검 琵琶形青銅短劍 59,
 63, 66

[ㅅ]

《사기》《史記》 71, 82, 117, 129, 140,
 141, 151
 《사기집해》《史記集解》 48
 사두매현 邪頭昧縣 239
 사로국 斯盧國 31, 39, 265
 사면성 四面城 172
 사벌국 沙伐國 39

- 사자 使者 202, 204, 205, 211, 212, 216
 사출도 四出道 205, 207
 사회진화론 社會進化論 23
 산융(족) 山戎(族) 70, 71, 79, 81, 121
 산정대관 山頂大棺 159
 《산해경》 《山海經》 48, 73, 81, 151
 산해관 山海關 87
 살해 殺奚 35
 《삼국사기》 《三國史記》 11, 47, 49, 72
 《삼국지》 《三國志》 118, 140, 165, 185, 202, 217, 289
 삼로 三老 241
 삼조선 三朝鮮 47
 삼족토기 三足土器 64
 〈삼한고기〉 〈三韓古記〉 52
 상 相 101, 102
 《상서대전》 《尚書大全》 58
 서단산문화 西團山文化 5, 63, 65, 121, 124, 149, 157, 161, 163, 173, 183, 218
 서어비스 E. R. Service 15, 16, 27
 서열사회 序列社會 25
 석곽묘 石槨墓 4, 60, 63, 64, 127
 석관묘 石棺墓 4, 57, 59, 60, 62, 63, 67, 116
 석노 石弩 140
 석부 石斧 132
 석봉산 지석묘 石棚山 支石墓 62
 선비 鮮卑 153, 166, 169
 선비 모용씨 鮮卑 慕容氏 185, 201
 선형동부 扇形銅斧 66, 124, 126
 섭하 涉河 107
 성기 成己 107, 136
 성산자산성 城山子山城 178
 성성초 星星哨 65, 122, 124, 125
 성읍국가 城邑國家 14, 79
 성읍국가론 城邑國家論 1, 16
 성책 城柵 289
 세문경 細文鏡 116, 124, 135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49, 73
 세죽리 細竹里 115, 130, 145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 細竹里-蓮花堡(類型)文化 104, 105, 116~118, 126, 127, 129, 130, 145, 164
 세형동검 細形銅劍 40, 59, 117, 135
 세형동검문화 細形銅劍文化 4, 116, 126, 129, 135
 소가 小加 211
 소국 小國 31, 118
 소달구 騷達溝 65, 124
 소도 蘇塗 8, 40, 41, 290, 291
 소라리토성 素羅里 土城 239, 242
 소릉하 小凌河 64
 소마시 蘇馬謨 114, 263, 280
 소문국 召文國 39
 소별읍 小別邑 267
 소서산 小西山 122, 124
 소오달맹 騷奧達盟 64
 소왕 昭王 84, 93, 118, 127
 손진태 孫晉泰 13
 송국리 松菊里 126
 송눈평원 松嫩平原 5, 149, 155, 173, 184, 201
 송화강 松花江 70
 《수경주》 《水經注》 74, 86, 89
 수력관개이론 水力灌溉理論 24
 수전 水田 277, 279
 숙신 肅愼 49, 125, 140
 숙신국 肅愼國 77
 숙신족 肅愼族 65
 순장 殉葬 65, 216, 221
 순채 荀屍 107
 스칼닉 P. Skalnik 29
 승 丞 110
 승석문토기 繩蓆文土器 131, 298
 《시경》 《詩經》 70
 시라무렌하 西喇木倫河 64
 시월제 十月祭 222
 신가고성(지) 新街古城(址) 173, 206, 207

신경준 申景濬 76
 신금현 新金縣 64, 122
 신단수 神檀樹 57
 《신당서》《新唐書》 201
 신석기문화 新石器文化 57
 신성 新城 16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8
 신지 臣智 35, 140, 269
 신진화주의이론 新進化主義理論 17
 신채호 申采浩 48, 55, 76
 실위 室韋 179
 심경법 深耕法 218
 심발형 토기 深鉢型 土器 122
 심양 瀋陽 119, 123
 십이대영자 十二臺營子 66, 121, 123, 124
 쌍방 雙房 65, 121, 122, 125
 쌍이동부 雙耳銅釜 220

【ㅇ】

아룩초객 阿勒楚喀 172
 아사달 阿斯達 49, 72, 79
 안드로노보문화 Andronovo文化 59
 안재홍 安在鴻 76
 안경복 安鼎福 75
 압독국 押督國 39
 압로 鴨盧 206
 압록강 鴨綠江 75
 약수 弱水 167
 양동리 良洞里 277
 양맥 梁脈 187
 양복 楊僕 107
 어니하 於尼河 77, 84
 얼 T. Earle 17, 20
 엄리대수 奄利大水 182
 엄표수 掩淲水 154
 엥겔스 F. Engels 12
 《여씨춘추》《呂氏春秋》 71

역계경 歷谿卿 136, 263
 역도원 酈道元 74, 89
 연 燕 4, 32, 79, 82, 118, 126, 163
 연나부 掾那部 188
 연석 礪石 132
 연화보 蓮花堡 115, 131
 열수 洌水 48, 75, 90
 염사인 廉斯人 280
 염사작 廉斯鎬 114
 《염철론》《鹽鐵論》 83, 84
 영고 迎鼓 218, 222, 224
 영구 營口 145
 영북부여수사 令北夫餘守事 197
 영역국가 領域國家 14
 영역한계이론 領域限界理論 24
 예 濊 36, 67, 69, 70, 140
 예군 남려 濊君 南閭 100, 103, 136, 137, 236
 예농층 隸農層 214
 예맥 濊貊 68, 69, 121, 192, 195, 235
 예맥조선 濊貊朝鮮 32, 57, 71, 92
 예맥족 濊貊族 57, 61, 62, 149, 157
 예성 濊城 162, 172, 174, 202
 예왕(지)인 濊王(之)印 162, 202, 236, 237
 예인 濊人 157, 184
 예족 濊族 70
 오금당 烏金塘 123, 124
 오나부 五那部 205
 오덕형 五德型 120
 오락후 烏洛侯 179
 오르도스 Ordos 120, 124
 오림 吳林 114
 오펜하이머 F. Oppenheimer 23
 오환 烏丸 153, 163, 169
 옥갑 玉匣 140
 옥저 沃沮 6, 101, 196
 옥저성 沃沮城 246, 247
 옥저족 沃沮族 170
 웅관묘 甕棺墓 65, 128, 131

와룡천 臥龍泉 120, 123
 와질토기 瓦質土器 298
 왕 王 31, 94, 100, 202, 205, 209, 211
 왕검(성) 王儉(城) 77, 78, 80, 129
 왕겸 王峽 108, 136
 왕기 王頎 195, 251
 왕망 王莽 114, 164, 192
 왕조 王調 111
 왕험(성) 王險城 91, 107
 외신 外臣 34, 99
 요동 遼東 3, 63, 66, 70, 81, 136
 요동고새 遼東故塞 90
 요동국 遼東國 87
 요동군 遼東郡 87, 100, 136, 191
 요동반도 遼東半島 60, 61, 78
 요동외요 遼東外徼 84, 88
 요동중심설 遼東中心說 3, 74
 요령 遼寧 60, 63, 119, 131
 요령식동검 遼寧式銅劍 117
 요서 遼西 3, 63, 66
 요양(현) 遼陽(縣) 76, 122, 128, 145
 요하 遼河 59, 60, 62, 76, 83
 용담산 龍潭山 162, 173
 용담산성 龍潭山城 169
 용범 鎔范 132
 용주황룡부 龍州黃龍府 177
 우가 牛加 202, 204, 205, 211, 212
 우거(왕) 右渠(王) 105, 107, 136, 139
 움무덤 土墳墓 132, 133, 164
 웅녀 熊女 50, 53, 57
 원거리 교역 遠距離 交易 284
 원시부족국가 原始部族國家 12
 원시씨족사회 原始氏族社會 11
 위거 位居 195, 204
 위구태 尉仇台 191, 194, 195, 202, 221
 《위략》《魏略》 82, 118, 153, 189
 위만 衛滿 4, 33, 97, 105, 118, 130, 136, 139
 위만조선 衛滿朝鮮 4, 16, 46, 97, 115, 117, 126

〈위서〉〈魏書〉 50, 72
 《위서》《魏書》 183, 226
 위술선한백장 魏率善韓伯長 281
 위호령 威虎嶺 172, 186
 유무 劉茂 240
 윤가촌 尹家村 128, 131
 은정월 殷正月 222
 은·주청동기문화 殷·周青銅器文化 63, 64
 읍군 邑君 281
 읍락 邑落 206, 207, 267, 268
 읍루 挹婁 6, 125, 149, 170, 178, 209
 읍루족 挹婁族 209, 221
 읍제국가 邑制國家 14
 읍차 邑借 35, 268
 《응제시주》《應製詩註》 49, 73, 76
 의라 依羅 196
 의려 依慮 196, 202
 이계상 尼谿相 101, 108, 136
 이도하자 二道河子 65, 122, 128
 이동설 移動說 3, 74, 78
 이오 李傲 199
 이익 李漢 76
 2차국가 二次國家 16, 27, 31, 39, 265
 인수 印綬 140, 281
 일부다처제사회 一夫多妻制社會 211, 217
 《일주서》《逸周書》 151
 일책십이법 一責十二法 216
 임둔 臨屯 99, 101, 109, 239, 248, 249
 임둔군 臨屯郡 239, 247
 임조 臨兆 86

[ㄷ]

《자치통감》《資治通鑑》 152, 176
 잠대현 蠶臺縣 239
 장경호 長頸壺 123
 장광재령 張廣才嶺 158, 172, 186
 장군 將軍 101, 102, 108

장사 長史 110
 장사산 長蛇山 125, 159
 장성 長城 83, 86, 98, 165
 장수 長帥 35
 저가 猪(豬)加 202, 205, 211
 저탄수 猪灘水 90
 적봉 赤峰 59, 124
 적석묘 積石墓 127
 적석총 積石塚 4, 116
 적장자 세습제 嫡長子 世襲制 202
 《전국책》《戰國策》 81
 전략적 자원 戰略的 資源 26
 전막현 前莫縣 239
 전연 前燕 177, 197
 전쟁포로 노예 戰爭捕虜 奴隸 215
 전조선 前朝鮮 47
 전진 前秦 197
 전형 고인돌 典型 支石墓 120
 점복 占卜 218
 정가와자 鄭家窪子 123, 128, 131
 정백동 貞柏洞 37
 정복국가 征服國家 98
 정복이론 征服理論 100
 정약용 丁若鏞 75
 정인보 鄭寅普 48, 76
 정치발전 단계론 政治發展 段階論 11
 제가 諸加 203~205, 209, 211, 216, 220, 224
 제3현도군 第三玄菟郡 166
 《제왕운기》《帝王韻紀》 47, 49, 73
 제의 祭儀 222
 제조 諸曹 241, 242
 제천행사 祭天行事 224, 244
 조공무역 朝貢貿易 280
 조두 俎豆 159, 228
 조문경 粗文鏡 40, 135
 조복의책 朝服衣幘 140, 189
 조선상 朝鮮相 101, 108, 136, 263
 조선후 朝鮮侯 32, 94, 101
 조양 朝陽 59, 60, 78, 145

조양동 朝陽洞 277
 족장사회 族長社會 118
 졸본부여 卒本夫餘 150
 주몽 朱蒙 189
 주민 교체 住民 交替 69
 주부 主簿 241, 242
 주신 珠申 48
 주조철부 鑄造鐵斧 278
 준왕 準王 4, 33, 96, 118, 126, 130
 중간영역사회 中間領域社會 21
 중계무역 中繼貿易 5, 104, 107, 114
 중국 衆國 35, 140
 중랑장 中郎將 281
 지석묘 支石墓 57, 60, 62, 63, 67
 지신족 地神族 54
 진개 秦開 4, 80, 82, 93, 118 127, 128, 145
 진국 辰國 7, 79, 140, 262, 264
 진번 眞番 76, 99, 101, 109, 111, 121, 248
 《진서》《晉書》 166, 167
 진술선예백장 晉率善濊伯長 141, 237, 281
 진왕 辰王 33, 35, 273
 진 장성 秦 長城 80, 85, 90
 진한 辰韓 7, 275
 진화론 進化論 18

[참]

차일드 G. Childe 24
 창려 昌黎 77
 창해군 蒼(滄)海郡 100, 103, 235
 책봉 冊封 280
 책성 柵城 185, 200
 책화 責禍 244
 천군 天君 8, 40, 55, 270
 천손사상 天孫思想 55
 천신 天神 8, 270
 천신족 天神族 54

천하관 天下觀 186
 철기문화 鐵器文化 296
 철생산 鐵生産 276
 철제 따비 鐵製 따비 277
 청구국 靑邱國 77
 청동기문화 靑銅器文化 47
 청동 원료 靑銅 原料 68
 청주 靑州 76
 청천강 淸川江 75
 초기국가 初期國家 16, 27, 30, 94, 105
 최 最 136
 최남선 崔南善 53, 76
 최리 崔理 113
 추모왕 鄒牟王 186, 199
 추장 酋長 16
 축첩제 蓄妾制 217
 취수혼 娶嫂婚 227, 228
 쿼프덤 Chieftdom 21, 27, 28
 치구루 置溝婁 185, 200, 246
 친족집단투쟁 親族集團鬭爭 24
 침촌형 沈村型 120

[ㄱ]

카네이로 R. L. Carneiro 20, 24, 100
 카라수크 청동기문화 Karasuk 靑銅器
 文化 59
 클라센 H. J. M. Classen 29

[ㄴ]

타날문경도 打捺文硬陶 298
 타날문토기 打捺文土器 131
 탁리국 橐離國 155, 157, 182, 183
 탁무 鐸舞 290
 태수 太守 110
 태자 太子 100
 텡그리 Tengri 57
 토광목관(곽)묘 土塋木棺(槨)墓 160,
 174, 226

토광묘 土塋墓 37, 60, 65, 128, 129,
 131~133, 164
 토성 土城 289
 토성자 土城子 125, 159
 통주 通州 177
 통합이론 統合理論 23, 24
 투기죄 妬忌罪 217

[표]

팔조금법 八條禁法 138
 패수 沛水 84, 85
 패수 潁水 75~77, 80, 85
 패수상군 潁水上軍 102
 패수서군 潁水西軍 102, 107
 평등사회 平等社會 21, 25, 27
 평양중심설 平壤中心說 3, 74
 포자연(전산) 泡子沿前山 125, 160,
 161
 포전 布錢 145
 프리드 M. Fried 20, 24, 25, 27
 플래너리 K. Flannery 16

[ㅎ]

하가점 상층문화 夏家店 上層文化 63,
 64, 79, 121, 123, 157
 하감 何龕 196
 하호 下戶 209, 213, 214, 216, 219, 221
 학고동산 學古東山 210, 220
 학반령 鶴盤嶺 191
 한 韓 7, 67
 한경 漢鏡 272
 한계 연인 漢系 燕人 97
 한군현 漢郡縣 110
 한 무제 漢武帝 5, 88, 100, 107, 136
 한반도 韓半島 61, 65, 69, 70
 한사군 漢四郡 5, 136
 《한서》《漢書》 109, 136, 138, 163, 164
 한서(문화) 漢書(文化) 5, 155, 168

- 한서 상층-망해둔문화 漢書 上層-望
海屯文化 158, 162, 183
- 한씨조선 韓氏朝鮮 57
- 한염사읍군 韓廉斯邑君 114, 263, 281
- 한예 韓濊 112
- 한왕 韓王 33
- 한음 韓陰 108, 136
- 합달령 哈達嶺 186
- 《해동역사》《海東繹史》 75
- 《해동역사속》《海東繹史續》 75
- 해모수 解慕漱 184
- 해부루 解夫婁 184
- 해성현 海城縣 79, 123
- 행인국 荇人國 186, 187
- 험독 險瀆 78, 91
- 험측 險側 35
- 현도(군) 玄菟(郡) 6, 109, 136, 166,
191, 194, 195, 247
- 현령 縣令 110
- 현장 縣長 110
- 형벌노예 刑罰奴隸 215
- 호능평원 呼嫩平原 201
- 호민 豪民 209, 213, 214, 219
- 호민층 豪民層 214, 216
- 호신 虎神 6
- 혼하 渾河 65, 89
- 화려현 華麗縣 239
- 화친 貨泉 282
- 환웅 桓雄 50, 53
- 환호 環濠 270, 288
- 황문고취 黃門鼓吹 194
- 후 侯 31
- 후장 厚葬 224
- 후조 後趙 198
- 후한경 後漢鏡 40
- 《후한서》《後漢書》 136, 138, 165
- 휘발하 輝發河 168, 191
- 흉노 匈奴 99, 106, 107, 141

집 필 자

개 요 김정배

I. 초기국가의 성격

1. 한국 고대의 정치발전 단계론 김정배
2. 국가 형성 이론의 한국사 적용문제 김정배
3. 초기국가의 성격 김정배

II. 고 조 선

1. 고조선의 국가형성 김정배
2. 고조선의 변천 김정배
3.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 경제 최몽룡

III. 부 여

1. 부여의 성립 송호정
2.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송호정
3. 부여의 정치와 사회 송호정
4. 부여의 문화 송호정

IV. 동예와 옥저

1. 동예의 사회와 문화 이현혜
2. 옥저의 사회와 문화 이현혜

V. 삼 한

1. 삼한의 정치와 사회 이현혜
2. 삼한의 문화 이현혜

한 국 사

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1997년 12월 1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7년 12월 20일 발행 (No. 97-12-6-20)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